朝鮮日報
夕刊
二十九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 株式會社

省對立의弊를是正코 綜合國策을樹立

軍部에서提示한內閣機構改革案內容

航空省新設에置重

【東京電話同盟】 庶政一新斷行의 前提로 必須條件으로서 內閣機構改革問題에 對하야 陸軍省에서는 去六日 寺內陸相으로부터 廣田首相에 對하야 그大綱을 書類로써 意見을 提出하엿다 그後首相以下 政府側으로부터 具體的意見再提出의 要望이 잇섯스므로 陸軍省은 航空省設置問題를 中心으로 全面的으로 海軍側과 愼重協議를 거듭한 結果 細部組織은 別問題로하고 骨子에잇서 意見一致를 보앗스므로 寺內陸相은 大演習陪觀出發前인 去二十一日 永野海相과 함께 廣田首相을 訪問하고 正式으로 此를 提示說明하엿는데 右軍部案內容은 大體如左하다

▲根本方針

一、各省對立의 弊를 是正하고 綜合國策의 企劃樹立에 當할 强力的 統制機關設置를 第一使命으로할것

▲內容

一、國策樹立機關의 新設 內閣調査局資源局의 諸機關을 積極的으로 改組擴大하야 참으로 强力的綜合國策의 企劃樹立에 當하게하는 同時에 無任所大臣을 新設하야 該機關의 長官으로하고 이로써 該機關의 企劃을 立案식혀 權威잇게 할것

一、國務大臣及 省의 數를 增加함은 부지럽시 國務遂行의 機動性을 阻害하고 또 各省對立의 弊害를 助長하는 等 弊害가 多大하므로 이것은 極力減少할것

一、事務에 應하야 各省組織을 改組統合하고 當該事務의 遂行을 合理化할것

一、產業省(假稱)의 新設 現在의 商工省과 農林省을 各各 一部로하고 다시 現在의 商工省及 外務省이 管掌하는 貿易關係事務、商工省이 管掌하는 燃料關係事務를 各各統合 擴大强化하야 各各 此를 一部로하고 여게 各部를 一括하야 產業省으로할것 또 各部는 現在의 各省에 匹敵하게할것 各部에 親任官級의 長官을 置할것

一、交通省(假稱)의 新設 現在 遞信省及 鐵道省을 各其一部로하고 다시 遞信省管掌의 民間航空事務를 擴大强化하야 一部로하고 此等各部를 一括하야 交通省으로할것 右各部管制는 產業省에 準할것

一、外政省(假稱)의 新設 現在 外務省(通商關係를 除함) 及現在拓務省(外地關係事務를 除함)을 各一部로하는外 다시 其他對外關係事務를 統括하야 一部로하고 此等各部를 一括하야 外政省으로할것 또 各部官制는 產業省에 準할것

一、內務省의 改組 現在內務省事務中 經濟及衛生을 除한 行政部門을 一部로하고 다시 經濟關係及衛生關係를 擴大强化한것을 各一部로하고 此等各部를 一括하야 新內務省으로할것 또各部官制는 前記各省에 準할것

一、外地關係의 移管 拓務省事務中 外地關係는 內閣에 移管할것

大體以上과 가티 推測되는데 右以外 國家歲出의 積極的合理化를 圖하는 意味로 大藏省所管事務中 豫算關係를 內閣에 移轄하라는 意見도잇다 그리고 前記各部는 現在各省에 匹敵하고 따라서 各部長官은 各行政長官[illegible]으로 되는 結果 右各省大臣은 各省大臣으로서의 立場으로서보다 國務大臣으로서의 立場이 主가될것이라 推察된다 右改革案實施의 曉에는 現在 十二省이 九省으로 되고 十二大臣이 無任所大臣을 加하야 十名程度로되는結果 閣僚의 數가 減少되는데 大臣의 數에 對하야 어데까지던지 陸軍으로서는 大局的見地로부터 이實現을 期한다[illegible]

國民政府苦衷을 川越大使에傳達

蔣氏、高宗武氏를通해

【南京二十八日發同盟】 日南廣東一路에서 歸京한 外交部亞洲司長高宗武氏는 蔣介石氏와 會見한 後 二十八日午後三時日本大使官邸에 川越大使를 訪問 日中交涉에 關한 蔣介石氏의 意向을 詳細히 傳達하고 아울러 『蔣介石氏도 日中交涉의 急速한 解決을 熱望하야 早速히 歸京할 豫定인데 國內事情으로 蔣介石氏는 極度로 若境에 陷하여잇다 이點을 日本側은 十分考慮하여주기를 바란다』고 中國當局의 苦衷을 訴하야 諒解를 求하엿다 이에 對하야 川越大使는 無口頭禪的交涉은 인제부터는 無用이다 日本國輿論은 中國側當局의 態度에 極度로 激昂하고잇다 당신들이 쓸데업시 解決을 遷延시키면 重大한 破局을 免치못할것이오 日中國交上 意外의 事態에 이를는지도 모르겟다 그럼으로 斷乎한 決意로써 時局에 臨하기를 바란다』고 語調를 强히하야 事態의 重大性을 强調 會見一時間半에 高宗武氏는 大使官邸를 辭去하엿다 또 川越大使 蔣介石氏會見은 勿論 川越大使 張群外交部長會見의 日程도 아즉 未定이다

라트비아金本位離脫

【倫敦二十八日發同盟】 엑스체인지 通信社의 特電에 依하면 라트비아政府도 金本位離脫을 決意 二十九日로부터 實施하기로 되엿다

萱生暗殺犯人 逮捕經緯를發表

一貫한抗日策動是認

【上海廿八日發同盟】 上海公安局은 二十八日夜 萱生暗殺事件犯人逮捕經緯를 詳細發表하엿는데 그 最後에 다음가티 述하엿다 萱生氏의 射殺犯人 毛永虎、鍾雲鶴兩名은 昨年汪精衛狙擊事件의 元兇王亞樵支配下에 잇는 中山民會射殺事件에도 關係가잇는것이 明白하다 彼等反動組織은 一貫한 테로政策을 實行하고잇서 公安局은 內外人의生命財產保護를 爲하야 全力을 擧하야 此等 反動分子를 徹底的으로 絕滅할라고 하는것이다 右는 屢次日本人暗殺事件 테로가 一貫한 抗日策動의 發現인것을 中國側當局이 是認한것이다

三十名官民權威 治山治水委員會

水電計畫調査도考慮

總督府에서는 朝鮮의 治山治水의 根本的計畫을 樹立하고저 官民中으로 選出한 治山治水委員會를 設置하게되야 來月十日頃에 委員을 決定하야 十月下旬에 第一回委員會를 開催하게되엇다한다 委員은 全部 三十名으로서 內務省과 農林省에서 各一人式 權威者를 招請하야 參加시키는 外에 民間에서도 相當한 數의 委員을 選出할 方針이라하며 委員會의 決定을 기다려 治山治水計畫에 伴한 豫算案을 作成 十二年度 追加豫算을 提出하게 된다한다。 또 이 治山治水委員會에서는 水力電氣計畫調査에 關한것도 考慮하게될터이라한다。

實業敎育振興 中央團體設立 會長엔清浦奎吾伯

【東京電話同盟】 文部省은 實業敎育振興委員會와 實業敎育振興에 關한 答申을 尊重하고 實業敎育方策에 關한 敎員任免及 素質向上 制度運用 學校外實業內容改善 學科徹底 實行에 移하는 等의 各要求를 具體的方策을 銳意考究하기로 되엿는데 就中右要項中 從來에 研究中이던바 實業敎育과 產業振興의 聯絡緊密에 關하야는 가장肝要한바이라 學校와 產業團體와는 結合一體가 되여 積極的活動을 하지아니하면 容易하게 實業敎育振興의 目的을 達치못한다는 結論으로부터 [illegible]

蔣介石氏 南昌에서九江向發

【上海廿八日發同盟】 中國側情報에 依하면 二十八日 廣東으로부터 飛行機로 南昌에 到着한 蔣介石氏는 午後汽車로 九江에向하엿다 同夜同地에到着 二十九日朝 廬山에 赴할豫定이라고한다

滿洲國三省長 一行二日에入京

滿洲國吉林省長李銘書氏、黑河省長劉夢庚氏、熱河省長劉夢庚氏、黑河省長[illegible] 一行은 日本의 一般事情視察을 爲하야 來一日新京發 一個月豫定으로 渡日하는데 二日午前二時五十分着하야 入京 總督府其他를 訪問 府內見學을한後 一泊 翌三日午後三時發 노조미號로渡日할豫定이다

嚴戒裡의上海에 테로暗殺團潛入

月光大旅社一團被檢

【上海二十八日發同盟】 三水兵狙擊事件以來 嚴重警戒를 加하고잇는 上海에 多數抗日테로暗殺團이 潛入하고잇다는 情報가잇슴으로 共同租界內 昆山路北四川路方面을中心으로 日本陸戰隊 租界工部局警察이 一層警戒를 嚴重히하는 同時에 工部局特別班은 二十八日午後十時 不逞團의 巢窟이라고 推測되는 北四川路의 月光大旅社를 中心으로 一齊檢擧를 開始하엿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 二十九日定例閣議는 午前十時五十分으로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 廣田首相以下 各閣僚出席 (潮內相 寺內陸相 小川商相 前田鐵相 林法相은 旅行缺席)爲先有田外相으로부터 重大時局에 處한 日中交涉에 對하야 中國側狀況에 關하야 蔣介石氏가 二十八日廣東을 飛行機로 出發한것은 確實한데 何處에 着陸한지는 아직正確한 報告가업다는 旨를 述하고 다음 歐羅巴小協商諸國 就中波蘭最近의 狀況及 에디오피아 近況에 關하야 報告가잇섯다 다시 對中問題에 對하야 重要懇談을 遂하고 正午散會하엿다

英國領事館撤廢

고레駐在唯一의

에디오피아에死刑宣告

【倫敦二十八日發同盟】 英國政府는 二十八日 西方에디오피아고레駐箚 英國領事館을 閉鎖 領事 스탄대후 캐-스카인大尉는 英領스단에 向하야 撤退를 命하는 旨를 發表 同時에 撤退許可가 업는限 英領으로 歸還하야 에디오피아와 交易을 禁止하엿다 고레政府는 에디오피아 帝國이 아직存在한다는 唯一한 證據로 하야 하일레·셀라시에 一世는 元來世界의 理想主義者들이 支持하고 聯盟도 默認하고잇다 고레府에 存在한 外國公使館은 英國領事館뿐이다 그撤收는 고레政府에 死刑을 宣告하는것과 가타 이로써 에디오피아帝國의 合法的存在는 업서젓다 以後는 單純히 伊太利政府의 統治에 對하야 土民의 間歇的反亂이 잇슬것뿐이라한다 倫敦外交界側은 英國政府의 右決定에 對하야 如左하게 觀察하고잇다 고레政府의 代表資格을 承認하엿섯는데 그結果는 伊太利政府의 憤激을 사서 歐洲의 平和와 自體를 危殆하게할 憂慮가 되고 現實主義英國側의 痛論이 씨가 되고잇던바 英國政府의 今回決定에 依하야 無人帝國이 事實上 抹殺되게되엿다

聖駕 帶廣에御進發

【帶廣電話同盟】 北海道開發에 깁흔 大御心을 가지시옵신 天皇陛下께옵서는 室蘭、御上陸以來이 미三日、室蘭、根室五十里의 海岸線을 御巡幸 親히北洋漁業의 狀況을 보옵시고 다시札北開拓의 實情을 御視察하옵시자 地方行幸 四日인 二十九日은 十勝平野 中心地帶를 御視察하옵시엇다 이날午前八時御出門 御發輦 細雨 同十四分御發車 同十一時三十分 御着車 略式自動車에 召列車는 帶廣驛 御着車 略式自動車로 沿道의 四萬市民에 親히 擧手를 賜하시며 同四十分 行在所帶廣明星尋常小學校에 着御하옵시엇다 帶廣市長은 곳 行在所에 伺候 市民을代表로 上表文을 捧呈하엿다 陛下께옵서는 午後一時 行在所御出門 北海道製糖株式會社 帶廣工場에 御行幸 製糖作業을 御天覽하옵시고 午後一時四十七分 新築落成한 十勝農業學校에 御臨幸 生徒의 實習場을 御內覽 北海道獨特의 農業實習을 約四十分의 長時間에 亘하시와 御視察 午後二時三十分 行在所에 還御하옵신後 同三時四十分 在鄕軍人、男女學生、靑年團의 分列式을 御親閱 女子靑年團五千의 奉唱歌에 이어 市民은 陛下의 萬歲를 奉唱하엿는데 天機御麗 三時四十三分 御親閱場 御發、行在所에 御還行하옵시엇다 또 이날午後四時 行在所에서 北海道開發功勞者 元道廳林務課長 林團之助氏를 御召하시와 北海道重要事業인 林業現狀의 說明을 御聽取하옵시엇다

蘇聯邦極東軍 大演習을開始

正規軍、新規徵募軍、豫備軍訓練演習

反日滿敵愾心鼓吹

【포크라니타나야發特報】 當地에 들어온 情報에 依하면 最近蘇聯當局은 赤衛軍兵士뿐아니라 一般民衆에 對하여서도 反日滿敵愾心鼓吹에 奔忙하고잇서 極東國境地方의 軍備擴張에 銳意努力하고 國境線에 沿하야 防禦設備를急激히 强化、極東軍의 新規徵集部隊正規部隊、豫備部隊의訓練演習을猛烈히行하엿다。 最近特히沿海州部隊 參謀部와 管理部가 잇는 보로시로프市(舊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가 强化되여 軍事設備가 着着完成되고 有力한作戰根據地로되엿다 今週水曜日부터 보로시로프市를 中心으로 壯烈한 演習이 靑赤色에分하야 三晝夜에亘하야 展開되여 에프特別極東軍總司令官 브류헬元帥 以下 各將星 極東地方委員會書記長라우렌티에프氏를 爲始하야 各機關首腦部도 參觀하엿는데 內務人民委員部極東部代表者가 參觀치아니한것은 各方面에 注目된다 特別極東部政治部에서는 今次 國境地帶演習에서 赤衛軍兵士間에 日滿側에對한 反感과 敵愾心植付를主要目的으로 擧行한 것이라한다

侵略國을包含한 大家族主義反對

蘇代表聯盟改造力說

【주네브二十八日發同盟】 聯盟總會는 二十八日 午後公開會議에서 亞爾然丁 丁抹 濠洲三非常任理事國任期가 滿了하엿스므로 改選을執行 볼리비아 新西蘭 瑞典의三國이 選任되엿다 一般討議에들어가 爲先 葡萄牙代表랑카-스將軍은 聯盟改組案에對하야 陳述하엿고 蘇聯代表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은 聯盟機構改革의 必要를 力說하야 다음과가티 述하엿다 最近數年間에 國際聯盟의 業績은 殆無하다 某某國의 侵略的意圖를 包藏한것은 周知의 事實인데 不拘하고 某某國으로부터 바든侵略의 脅威를 認識 못하고 共同防衛 集團的 安全保障策이 單純히 口頭宣言에 끄친것은 遺憾이다 戰爭危險이 目前에 迫到한 現狀에는 무엇보다 먼저 旣定諸原則을 實行할 手段을 確立하야 아니되면 아니된다 聯盟改組案은 次期大會까지 延期하는것은 絕對同意할수업다 目下國際情勢를 寫馬牛視한다면 聯盟은 要컨대 「待合室」에 墮하여 버릴것이다 다 一般國際軍縮會議 再開를 主張하야 日蘇聯政府는 一般國際軍縮會議再開에關한 佛國政府提案을 支持한다 聯盟이 聯盟以外 各國政府를 網羅하야 普偏的組織으로서 强化치안는限 聯盟은 一切行動을 保留치안흐면 아니된다는 主張도 들리는데 他國領土侵略을 意圖하는 將領土保全에關한 規約第十條를 嚴守할 理由가업지나안흘가 如斯한 國家를參加시켜서 無理한 普偏性을 確保하라고하면 聯盟은 차라리 根本原則을 放棄하는것이조흘것이다 다음丁抹代表등크 外相은 規約改訂에反對하야 和協手續改正을爲하야 特別委員會組織을提言 다시 스칸디나비아諸國及 和蘭代表는 軍縮幹部會速開의緊急討議를 提出하엿다

蘇聯監視船이 興安丸을抑留

黑龍江漠河에서

【哈爾濱二十八日發同盟】 二十八日 北滿金鑛株式會社 哈爾濱出張所에온 入電에 依하면 黑龍江漠河所在의 同社所有 小型發動船 興安丸이 去二十五日 반-스金鑛地에 食料運搬을爲하야 黑龍江中 포크로프가附近에 繫留中 突然蘇聯監視船 二隻이 接近하야와서 興安丸의 停船을 命한後 그대로 同船을 抑留케하고 乘組員日滿人五名은 蘇聯領에 拉致되엿다 또運搬中의 食料品도 掠奪된 模樣인데 拉致된日滿人의 安否는 不明이나 右五人中日本人二名은 黑河同社出張所員松江、上原兩氏로 推測되며 興安丸은 對岸蘇聯領內에 繫留되여잇는것이 判明되엿다 右事件에 關하야 外交部는 事件을重大視하고 目下對策을協議中인데 現地로부러오는 詳細報告를 기다린후에 蘇聯에 嚴重抗議하고 乘組員의 釋放을 要求할터이다

八面鋒

◇行政機構改革에 依한 內閣制度改廢와 無任所大臣設置에 對하야 民政은反對, 政友는贊成。

◇調査局中心의 政策參謀本部를두고 各省에는 事務大臣을두자는판이니 政黨者의容喙할餘地가적을듯한形勢。

◇三倍大의地域으로 擴張한京城府、三部制의新機構로 行政까지擴大。

◇다음에올것은 敎育에 產業에 府民生活에 정말大京城의面目에맛도록할것이가。

◇仁川府도 擴張, 水原邑도擴張, 都市의擴大工作이 競爭的으로 進行되는趨勢。

◇都市만크다고 都市가흔자서成長할수는업는일, 附近農村의培養이 무엇보다急務。

人事·集會

▲南總督 十月二日午前九時에 京城驛出發開城을 視察하고當日歸京豫定

▲三橋警務局長 梨本宮殿下 朝鮮御來臨御迎並御警衛次 廿九日午後十時五分發 釜山에

▲相川外事課長 宋事務官帶同 廿九日午後三時五十分 京城發 北朝鮮經由 間島、牡丹江、哈爾濱、黑河、新京地方을 二週間日程으로 視察豫定

▲鈴川壽男氏(總督官房文書課長) 新任人事次來社

▲康容朽氏 (京城府會議員)當選人事次來社

將棋는熟達이빠르다

高段者의力說

將棋는圍碁보다 乘手하기쉬우므로 어린애라도 册子로배우면 初段程度로되는것은 困難하지 안치만 自慢하고잇스면 決코熟達해지지안는다 東京市小石川區大塚町三十六番地大東社에서는 今番發表한 『定石詰手將棋必勝法』이라는 秘藏書는棋界의 名人關根金次郎先生의校閱下에 苦心研究한結果 六枚落 四枚落 二枚落 飛香落 飛車落 角落 左香落 平手 가되기까지 의戰法을圖解說明을加하야 一手마다 그말의 움즉이는意味를 分明히 머리에 너코록力說하고 누구에게나 實際로活動할수잇는 놀날만한 編輯으로 一大改革이 加하여젓다 그런故로 初心者와 段位者 서로 困難하신분은 初步라도 이冊을 보면 熟達하야 初段以上의 實力을 發揮할수가 잇다 또이外 初學者를 爲하야 簡單 石田의 捷法美濃圍 飛車 角飛車 雁木 三筋香車 等 알기쉽게 說明하엿다 그래서 定價一圓五十錢을 一圓이라는 破格으로 百名限 特賣하오니 希望者는 前記大東社로 葉書에 申込하면 곳後金引換으로 送本하니곳申込하라

조흔家庭工業

最有望의 社會의 資料잇는大事業家進出

第一 日常生活上必要不可缺한世界的消耗品으로 婦女子製造容易하고 用途가 極히 多大함

第二 一分의 家庭의 空間利用으로 各地에서 自由製造 賣買할수잇슴

大阪港區市岡四市場通 內外貿易 株式會社

치병―제일이보 예방―제일아보 영양―제일아보

●특히다음과가튼증세 에―픽가성에상비하시옵 ―동이푸르며부글부글 ―글한설사를하는데 ―젓을토하며울게누

「보아」젖에동른후사설 三十五錢

가기우지경풍

(의주품조위) 보다 가루일동이국사 다 나는아은하며 시 효력이잇어오오아 가 경성약국사소아 과 본방(경성약국)

鐘路一丁目(화신전우) 본점 京城藥局 振替京城八三六六七 電話光3三三七四

朝報案內 店員 入用 十八九才ヨリ二十二、三才迄 保證人ヲ要ス 京城府內在住者ニ限ル 黃金町(中央館前) 三國商會

眼鏡은東亞醫院

專門 檢眼

眼科·齒科

京城 電話光化門二四三六番 鐘路

淋疾 蔘茸五淋錠

淋疾은體質과副感染에따라各各다릅니다 腎淋、血淋、肉淋、砂淋、骨淋은五淋이라하며 甲藥으로 乙이無效하고 乙藥으로 甲에不適한事實이잇습니다 本劑는人蔘과 靑多數漢藥에 强力殺菌劑를 配合하엿고 高貴한體質을 適應식히는 洋藥의 勢力을 가진 本劑를 試用하시요(無代 說明書 進呈)

藥價 一圓 三圓七十錢

咸興府大和町三丁目 朝鮮靈藥研究所

全國有名藥店에 無할時는 本舖에 葉書로나 振替로 注文하시압 振替京城二三四六六番

김질藥은 水オヂリン

胃腸障害를 念慮하시는분 一回一個服用

定價 一二三 圓圓圓 五 十 錢

京城本町四 各地藥店有名한곳에 木村藥房

열흔모친을찾는아희

어린 몸이 자세의 엄마 자식을 다리고 살다가 생활을 여지할수가 업서서 그 아희를 어떤 친척의 집에다가 위탁하고 재생으로 도망이를 가게 되엿다 이 아이는 친척의 집에 잇서서 헐며를 지심히 밧고 밥도 잘 어더 먹을수가 업는네 엄마 생각이 간절하고 또는 남들이 말하기를 경성잇는 네 어머니를 차저 가거라 그리고 네 엄마한테 잘 봉양하엿슬것이라고 하엿다 그리하야 이 아희는 엄마를 차즈려고불원천리하고 어어 먹어 가며 경성에 와서 길거리에 방황하다가 기진맥진하야 김 가에 쓰러진것이 순사의 눈에 띄이게 되여 경찰서의 신세를 지게 되엿다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신 자녀이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어머니시다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것과 가티 하나님께서 우리 벗죄하고 쫏겨난 자식들을 도루 찾으려고 노력하시는것도 잇는 동시에 잃어버린 자식인 이상에 그 일흔 부모를 찾으려는 운동도 업슬수 업슬것이다 그리하야 인간 헤사를 좋하야 하나님을 찾으려는 운동도 미상불 적잔흔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이 목적을 똑바루 추지 못하고 다 봇잡의 운동이 되고 말엇으니 즉 세상의 모든 종교 운동이 그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흔 자식을 차즈려는 운동은 원하이기에 ×죄악이 끠대한이 만흠 아직 성취되지 못하엿으나 멀지 안흔 장래에 완성될 희망이 잇스니 이는 곳 「예수」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다

電醫養成 (全國無試驗開業 醫師同樣開業) 認可唯一

特典 認可잇는 講習院은 本院外에는 업스므로 地方人을 爲하야 理上關係로 電醫學生의 便宜를 圖코저 特히 今期入學者에 限하야 汽車賃半額을 授業料에서 免除함

入學

認可 高等電醫講習院

(規則送呈) 釜山府富平町三ノ一七

坑夫募集

大端히 서늘하게되여서 寒氣도 眼前에 닥처옴니다 그럼으로 各士木工事도 漸漸히 끗나게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와反對로 우리炭鑛에서는 事業의 擴張을 爲하야 大大的으로 坑夫를 募集하오니 生活難에 쫏기는 이는 今 一時라도 速히 오시오 賃金은 一圓乃至 二圓이고 勞力에 따라 그以上도 잇슴니다 安全을 爲하야 生活의 安全을 求하려는 者는 오시오

特典 社宅의 設備도잇고 또每月一回의 公休日을 利用하야 坑夫諸君의 慰安을 目的으로 活動寫眞도 映寫합니다 더우기 身體保健을 爲하야 沐浴도 無料로 提供합니다 조곰이라도 坑夫諸君의 安心하야 그날그날의 生計에 困難할 만한 일은 絕對로 업는 地帶로 炭鑛이 將來生活安全의 生活의 安定을 欲求하는 者는 오시오

特典 社宅電燈料免除、沐浴水道의 完備、勞動賞與支給(特히 掘進探炭夫는 優待의 方法을 講究함니다)

咸北明川郡永安炭鑛伊丹組出張所

公告

當社는 昭和十一年七月三十日臨時株主總會의 決議로 解散하엿고 淸算中이온바 當會社의 債權者는 此 公告到着日부터 二個月以內에 債權을 申出하시압 萬一期間까지 申出이 無한時는 淸算으로부터 除斥함

右公告함

昭和十一年九月二十八日

京城府古市町四三

朝鮮運輸計算保證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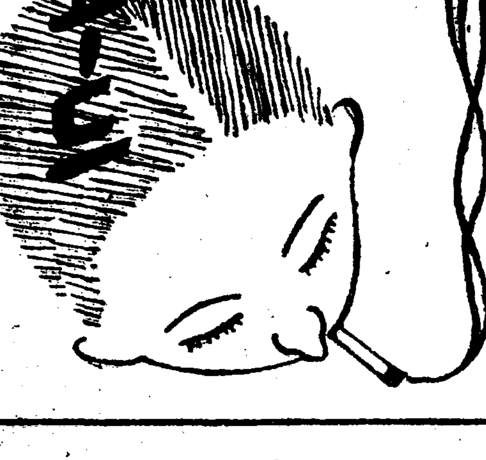
淸算委員長 安 用 善

오케―最近作盤

流行歌―一九一五―

사나희술을다섯

金海松



오케레코―드

三千萬圓豫算
中等校擴充十年計畫
第二次初等校擴充과連繼
帝大學部의增設等도考慮

총독부에서는 명년부터 십개년계획으로 중등학교의 확충과 통제를단행하고저 방금중등교육조사위원회에서 구체안을 협의중이라함은 긔보한바와갓다

그런데 중등교육의 확충내용은 실업학교증설을 중점으로 남녀중등학교의 증설을 한다는것인데 이에관한 총예산액은 국고배지출과 지방비부담을합하야 약 삼천만원의 거액에달한다하며 매년약삼백만원을 지출하되 그중 삼할오분내지 사할을 국고보조로 지급할 작정이라한다

이중등교육확충안은 역시명년부터 실시하는 제이차 초등교육의 확충에 관련하야 필연적으로 중등교육의 확충을하게되는것인데 따라서 래명년부터는 다시경성대학의학부증설과 확충은물론 전문교의 증설을 도모할 터이라한다

朝鮮語學研究會서 訓民正音頒布記念

부내인사정(仁寺町)조선어학연구회(朝鮮語學研究會)에서는 오는삼십일 오후다섯시부터 부민관에서 훈민정음반포긔념식(訓民正音頒布記念式)을 열기로되엿다는데 일반인사도만히 참가하여 주기를바란다하며 회비는일원인데 당일가저오면 조타고한다 그리고 식순은다음과갓다

一、開會辭 權永達
一、趣旨說明 李肯鍾
一、祝辭
一、座談會
一、訓民正音原本供覽
一、晩餐
一、閉會

仲秋佳節

래일은 추석(秋夕)! 추석은 조선에 잇서서 세가지 명절의 하나가되는다 들에 우거진 오곡(五穀)과 산에널린 밤、대추、감들등…계절의 과실들은 흠뻑무르게 익어서 농가에서는 수확의기쁨에 담뿍취해잇는니만치 이날을 가리여 송편을빗고 송편쩌서 우호르는 선대(先代)에 다례(茶禮)를 지내고 아레로는 오직안이 배를불리며 질거하는날이다 이날의 시초는 신라(新羅)때 유리왕(儒理王)께서 길쌈짜스는녀자들의 수고를 가상히여겨 궁중으로 불러드려다가 술、떡、고기등 오갓진미로하로 동안배불리 먹이고나서 춤추고 노래를 불르게하여 하로를 질겁게 보내게햇다는데서 부터 시작되엿으로 이날을 가배절(嘉俳節) 또는 『가위날』이라고도불르는것이다。

即坐答電의便法
十月一日부터實施!

긔보=시월일일부터 전보취급제도가 개정되여 전보의 배달을 바든사람이 그배달부에게 반신전보를위탁할수잇도록되엿는우편국측에서는발신인과배달부간의 수수(授受)를 명확히하기위하야 배달부에게 전보의 의탁부(依託簿)로 가지고단기게 하얏는데배신인은 의탁부에다가 전보의 종수외탁금액등을 긔입한후날인하게되엿다

그리고 배달부의 기다리는시간은 오분간이내로되여 잇다고한다

米塵恐怖時代!
新堂町米屋에又復侵入타가 主人이格鬪後逮捕

요사히 시내에는 쌀가게를 노려 담어나 집웅을 넘어드러가 현금을 훔처가는 대담한도적이 횡행하는것은 주목되는현상이다

이삽일 시내산수정(山水町)과 신당정(新堂町)의 쌀가게에 도적이잇서 미진공포시긔(米塵恐怖時期)를 연출한뒤를이어 이구일 새벽 세시사십분경에 신당정(新堂町)이백삼십삼번지 쌀가게 장인현(張仁鉉)(五二)씨의집에 괴한 한명이 안방으로들어와 켜놋자든 등불을끄고 주인머리맛헤노혀잇는 나무로만든 손궤를 훔처내엿다 갑작히 방안이 캄캄하게된 바람에 잠이깨인주인이 손궤업슴에 깜짝놀라 집안을 살펴보니 괴한은 대문간구석에 숨어잇는것을 격투끄테붓잡앗는데 그는 황해도재령군재령읍향교리(載寧郡載寧面鄕校里) 백오번지에 원적을둔 배성찬(裵聖燦)(二〇)이란 소년으로 동대문서에서는 이자가 전긔산수정 도회정 두살가가에도 침입하엿든것이 아닌가하고 엄중취조하는중이다

東光醫院
專門科目 內科 小兒科 X光線科
特設 呼吸器病無料相談
往診 隨時
京城府[illegible]町一八四番地 (大廟橋近處)
東光醫院 電光四〇番

運動競技

五選手
今夜上海를出帆

伯林올림픽大會에 出戰하야 활약한 孫基禎、南昇龍、李性求、張利鎭、金容植、李奎煥等諸選手는 올림픽代表本隊와함께 日本郵船鹿島丸으로 歸國途次 昨二十八日午後九時半 上海에 寄港하엿는데目下上海의 時局이 險惡함과 夜中에到着한關係로 上陸치못하고 二十九日午後九時 上海를 出帆하야 神戶에는 十月二日에 到着할豫定이다

女子올림픽 各部出場팀決定

朝鮮新聞社主催의 第十四回全朝鮮女子올림픽大會는 來四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바 參加校는 陸上競技中等學校部에 京城女高普、同德女高普、進明女高普、第一高女、第二高女、龍谷高女、京城女實、仁川高女、同上女實等 九個校이며 同一般部에는 京城女師、京城女實OB、學童部에는 昌信公普、普成普校、元町小學校、櫻井小學校等合十五個校、排球部에는 淑明女高、進明女高、同德女高、京城女高普、第一高女、第二高女一般部에 京城女師、鐵道局等九個團體가參加하엿스며 籠球部에는 淑明女高、同德女高、京城女高普、龍谷高女、第一高女、第二高女、京城女師等七校 卓球部에는 淑明女高、同德女高、京城女高、第一高女、第二高女、女子商業、京城女師等의 七個校로其總出場選手延人員數는千餘名에達한다고한다

明大8 法政4

【東京電話同盟】東京六大學리ー그 明大對法政大學 第一回戰은 二十八日午後二時半부터 神宮球場에서 三谷(球)瀨口、西村、坪井(審)四氏審判下에 法政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八A對四로明大先勝하엿다

法政 031000000
明大 30013001A
8A…4

가을은괴러워

仲秋月下에悲劇
名節의凶事를主家에恐縮! 公園벤치에나와隕命

이십구일 오전열시경에시내 사직공원(社稷公園)벤치우에 어떤젊은 사나이 한명이 죽어잇는것을 부근사람들이 발견하고 떠들게되여 소관종로서원이 현장에쫏차가서 처음에는 그의문의 시체를찻고 한참동안 긴장되엿스나 조사한결과 드디여 그신원과아울러 그시체를찻고도는 듯기에도 애닯흔한토막 인생비극이 들어나게되엿다 시체의주인공은 시내 내자정(內資町)륙십팔번지 김영진(金永鎭)의집에 몸을 부치고잇는 김창현(金昌鉉)(六八)의 장남완수(完洙)(二七)란 사나이로 전긔김군인은 몃해전에 안해를일혼후로 가세가 극도로궁핍하게되고 아들 완수조차 묵어운 폐병(肺病)에 걸려서 살아갈길이업서 친히아는 전긔 김영진의집에 몸을부치고 늙은 아버지와 병든아들이 죽지못해 살어가고잇섯든것이다 그런데추석(秋夕)명절을 하로압두고 죽어간안해의생각과 극빈한 자긔네신세가 한층더설워 지는데다가 갑작히 병든아들이 텁홍을하려는 그색이돌자 명절압날 은혜를입고잇는 남의집에서 초상을 내는것이 너무도 미안하다고 생각하고이십팔일밤에 다죽어가는 아들을업고 사직공원에나가서 벤취우에서 보름달을 보며 눈물의 림종을마친후 날이새자 룸인은 장식비를 구하려 각처로 돌아다니던틈에 전긔와가티 시체가발견된것이엇다

天氣豫報

槪況 優勢한低氣壓은 日本海北部를 北北東으로進行하는中이다

颱風은 大東島의 南海上에 잇는데中心은七四五粍內外를보이고잇서北北西로進行하고잇나 高氣壓은 蒙古로부터 滿洲와朝鮮에퍼저잇스며 오호츠크海와 小笠原島附近의 海上에도氣壓이놉다 滿洲와朝鮮은大體로개여잇는데 京城에는안개가잇섯스며 元山에는 雷雨가잇섯다 日本內地는흐린편이만흐며 琉球群島附近의海上은風浪이甚하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來日에걸처 흐렷다개엿다하며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五度二
同最低 一二度五
今朝最低 一四度八
今日正午 二三度九

朝鮮紡織職工
二千餘名이動搖
炊飯職工賃金引上要求導火로
釜山署는極力警戒

【釜山支局電話】이십구일아침열한시경 부산부범일정(凡一町)조선방적공장(朝鮮紡織工場)밥짓는데잇는 남직공 이십여명이 그회사직공인 사무를취급하는 공수부(工手部)에게가서 임금인상을즉시인상을요구하엿는바 주엄이엇다는리유로 회답을회피하자 그들은 태업(怠業)을 시작하엿스며 전공장 이천여명의직공들에게 큰충동을주어 동요의빗치 농후하다 여긔에 실색한 공장에서는 이것을 곳 부산경찰서에 보고하고 경찰과협력하야 공장내외를 엄중 감시중으로 사태의 전정은 자못 주목된다

이공장이생긴이래 밥하는곳직공으로서는 처음인 이태업의 동긔를 듯건대 그들은 지금부터 약한달전에 그들의임금을 통하야 ▲요사이 물가가 엄청나게올러 한달생활비가 약오원이상 부럿스니 사십오전내지 륙십전의 임금을 삼할올려줄것 ▲작업복(作業服)을 정긔적으로줄것 ▲장화(長靴)를줄것등세가지를 요구한바 잇섯다 이에대하야 끄트로 두가지는 즉시고려한다고하고 처음요구조건에 대하야서는 구월이십륙일 임금개정일(賃金改訂日)까지 기둘러보라는 공장측의 언명에 그들은 한수고대 그날이오기를기둘렷든것이다

그러나결국내정임금이 발표되고보니 임금이 오른것은 전직공가운데 약삼분지일에 지나지 못하며 그도이전내지 륙전이란 소액이엿스며 문제의 밥짓는곳인부에한하야서도 오른것은 단 열두사람뿐으로 그것도 륙전이 한사람 오전한사람 사전세사람 삼전한사람 이전여섯사람이라정도이여서 이것이이번 태업의직접원인이된것이라고한다

總督總監義捐
水害救濟金으로千圓、五百圓

저번남조선일대와 강원도지방의 수해참상을 실지로상세히시찰하고도라온 남총독과 대야정무총감은 이십구일각각 일천원과오백원을 수해의연금으로 사회사업협회에 긔탁하엿스며 경성전긔회사에서도 사천원의 긔부가잇섯다

이로써 이십구일까지의 의연금총계는 십구만륙천삼백이십사원에달한다

消防手燒傷

시내 본정(本町)이정목 오십사번지사는 소방수(消防手)관춘남(關春男)(二七)군은 이십구일 오전일곱시 오십분에 시내 황금정(黃金町)이정목 일백이십구번지압 전차길에서 시내 무교정(武橋町)조일조(朝日組)자동차부운전수 엄경철(嚴慶哲)(二二)이 운전해가든 자동차에 바치여 가슴과 배와 왼쪽팔에 십일동안 치료바들 상처를 입엇다 피해자는 영락정(永樂町)전차정류소에서 나려서 전차길 남쪽으로 가로건느든중에 황금정 일정목에서달려오는 자동차에 바치게 되것이라한다

襄陽에暴風雨

【大浦支局特電】이십칠일습래한 폭풍우로 말미암아 강원도양양읍(襄陽邑)에는 또다시칠수소동이 일어낫스며 연안각지에는피해가 상당할모양이나 교통은두절로상세한것은 아직알수업스며대포연안에서 시체한개를발견하엿다

中央高普生事件八名
三年以下各各體刑
今日京城法院서求刑

세칭중앙고보생적색독서회사건관계자한동정(韓東正)등 여덟명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 폭력행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등에관한 제삼회속행공판은 이십구일오전아홉시반부터 경성지방법원형사부제삼호법정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향천(香川)검사관여 신태악(辛泰嶽) 서광설(徐光卨) 김병로(金炳魯) 리종성(李宗聖) 한영욱(韓永煜)등 다섯변호사렬석미테 열리엇다 먼저검사로부터 다음과가티 최고삼년으로부터 최하일년까지의 체형구형이잇슨다음 변론에들어가서 각변호사들은 이사건은 피고들의 진술과 가티 단순한 호긔심으로말미암은 사회과학연구에 지나지 못하는것으로 이 사건에 치안유지법위반이라는 죄명을붓치는것은 흡사히 소잡는칼로닭을잡으려는것갓다고하야 그들의 애동의 관대한처분을 내리기를 주장하엿다 최후에 피고들은자긔변론에들어가서 이것은 결코 공산주의를 실행하려는 목적미테한것이아니라는것을 거듭주장하엿다 언도는 오는시월십삼일에하기로하고 오후령시사십분에 폐정하엿다

▲韓東正 懲役三年 ▲張錫進 同一年六月 ▲李俊圭 ▲李鍾說 同一年六月 ▲柳仁洙 同二年六月 ▲柳術同 二年 ▲金世俊 ▲宋在賢 同一年

妙齡女探偵潛入?
市內各署가猛烈搜查

작금수일이래로 경긔도 경찰부를 비롯하여 부내각서에서는 로령(露領)으로부터 잠입한 강경자(姜景子)(二七)ー가명ー라는여성을 붓잡고저 맹렬한 활동을 계속하고 잇는데 탐문한바에의하면 그는 해삼위(海參威)태생으로 그곳서 어려서 소학교를 마치고 소화이년에 간도룡정시(間島龍井市)로 가서 대성중학(大成中學)을 다니다가 그후적색운동을 해오든중 지난륙월에 포염사덕 국제당극동지부(浦鹽斯德國際黨極東支部)로부터 조선과 만주의 여러가지 정세를 살피어 보고하라는 밀정의사명과 아울러 다액의려비를 바더가지고 훈춘(琿春)지방국경을넘어 지난팔월하순엔 다시 상삼봉(上三峰)국경을거처가지고 조선으로 잠입햇는데 서울에 드러와 잠복한형적이 보이기때문이라한다

天理敎女布敎師取調

이십구일아침 본정서 사법계에서는본정(本町)사정목 천리교포교소(天理敎布敎所)에잇는녀자포교사 영부모(永富某)(三二)를불러서에검거하여다가 취조중이다 사건의내용은 미신행위(迷信行爲)를가지고 교도들에게서 다액의금품을 사취한혐의 이라고한다

路頭에同性情死
두사나이가阿片을먹고苦悶
一名은絕命、一名瀕死

애상(哀傷)의 가을바람이 절문이의 죽엄을 챗직질 함인지 이십구일 아침 시내에 동성정사사건이 잇다ー

이십구일 아침 다섯시경 시내 황금정(黃金町)륙정목 경성약학전문학교(京藥專) 뒤길에서 독약을 먹고 신음하고 잇는두사나이가 잇는것을 그곳을 지나가든 사람이 발견하고 부민병원에 입원식히고 응급수당을 다하엿스나 한사람은 가튼 아홉시경에 드디여 절명하고 한사람도 회생할 가망이 업다고한다

죽은 사람은 김만석(金萬石)(二二)이고 한사람은 최긔영(崔基榮)(二四)이라고 한다 그날 새벽음독한 장소는 판명되지 안헛스나 두사람이 합의하야 다량의아편를먹고 계획적으로 자살하려든것으로 그들은 삼사일전까지종로(鍾路)오정목삼십팔번지 동문옥(東門屋)이라는 설녕탕집에서 고용사리하다가 주란(酒亂)이심하여서 해고당한직후에 이와가튼 죽엄을지은것이라한다 그들이 자살하려든동긔는 아직확연치는안호나 삼사일전 어듸서인지 아편을어더가지고와서 자살하겟다고 동무들과 이야기한바도잇다고하며 두사람이 모다가 정적으로 고독(孤獨)한 환경에 잇스며비교적 방랑한생활을 계속하엿다는 점으로보아 일종의 염세자살이 아닌가한다 시체는 경성부청에 인도할예정이라한다

東洋建築社
建築設計
京城鍾路三丁目 電光1182番

여름철의지친몸을회복식히라

500瓦
250瓦

參茸精의特長

一、이약은다른參茸劑와달나서 人參과 鹿茸의精分을 最新藥化學的方法으로 露出配合한外에 有效成分等數種의高貴滋强壯劑를合理的으로 配合하얏슴으로
二、如何한體質에나 맛지안흘일이업는것
三、如何한病弱者라도 體量하로만 服用하여도 顯著한効果가나타나는것
四、이약은液體인고로다른丸劑와가티잘체하거나 服用後에도卽時效力이나타나지안는일이업시 服用하면 卽時全身에퍼저 여效力을보게되는것

日鮮滿各地 名藥店에서 販賣합니다
總發賣元 京城授恩町三三 朝鮮商會 電光一七八五番

九大醫學博士有効證明

이런症勢잇는분은 한시밥비쓰시요!

◎夏節疲勞로因하야食慾이減退한데
◎肺結核初期나二期로苦痛하는이
◎陽氣不足으로因하야靑靑한老人이된이
◎胃腸病으로因하야恒常苦悶하는이
◎貧血症으로因하야얼골이蒼白하며手足이冷한이
◎神經이衰弱하야不眠症으로苦生하는이
◎小兒發育不全産前産後諸症

高速度補血強壯劑
參茸精

運動의가을 服藥의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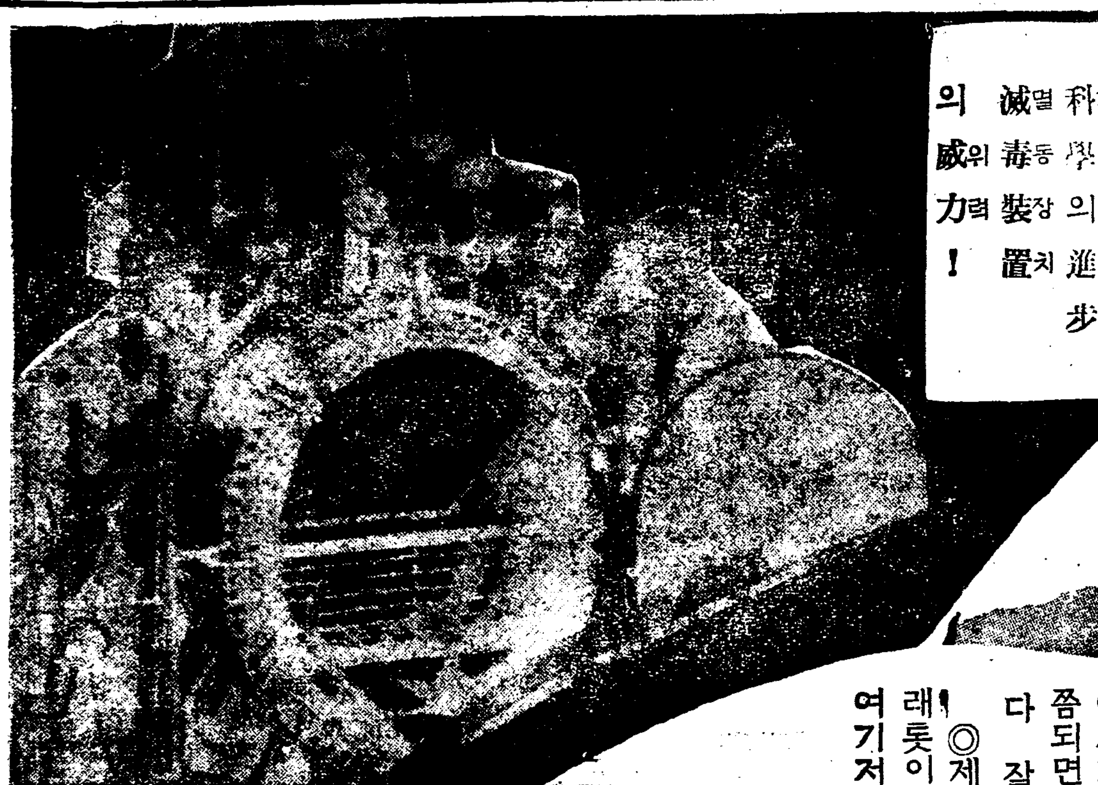
運動 이健康에必要한것은 누구나잘아는바입니다 그러나아모리조흔運動이라도 本來가虛弱한이는 오히려몸을害롭게하는일이잇스며暫時間만運動하여도 卽時疲勞를느기는것이니 이런이는하로라도速히參茸精을服用하시요

一滴千金의 이參茸精이야말로 健强을防害하는 모든 病魔를 물니치고 敏速하게 新進代謝作用을 하는것이니 爲先 長時間運動에도 何等에疲勞를느기지안코 高速度로健康을促進식히는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運動과服藥과健康 의三大原則을 發見할수잇슬것입니다

必欲長生者 必飮參茸精

매독엔 푸로다ㅣ를 쓰시오



科學과학의進步진보 滅毒멸독裝置장치의威力위력!

매독엔 푸로다ㅣ가 제일인 리유(理由)

매독엔「푸로다ㅣ」가 제일인리유(理由)사루바루산수사(六〇六號)는 일수일 에 한번씩 수십수일을두고마저야겨 우일시잠복식히는것은이매독이세상에서업서지지아니하고다시 도지고 하는것을 보아도잘알수잇고 또 잘못하면살이썩고 생명까지위협한일이잇다 결국혈액중에잇는균은 생리적으로 흡수된약이아니면죽 지아니한다 또 무지한사람은독한수은(水銀)을 피다가생명을 빼앗기 는일도잇고 병이속으로、드리거서、평생고질로비참한 일생을보내게되며 혹갑싼것을 취하다가입안이헤여지 고 속이뒤집히고음식을못먹어큰욕만보고 병도못고치는일이잇스니 한번이런병에걸니는것도 무섭고참혹한일인대불 합리(不合理)한치료는 돈만허비하고 큰고통을밧게되니참 두려운일이다푸로다ㅣ는먹는약으로 구감안나고 위장안상하 고생리적으로 병독균을멸사식히고 사람의피를깨끗하게하는 최고귀한약제 만 든신발명한 약이 다첫재로 매독균을죽이는성분이 가장합리하게만 히드러잇고약원료(原料)가고귀하야 다른약보다 약갑이좀마 느나 속히드르니결국싼것이다 셋재로 약효가속하고 넷 재로 구감안나고 위장안상하고 부작용업고 다 섯재로 피를맑게하는 정혈제(淨血劑)니몸 에리(利)가되고 여섯재로 환약임으로 먹 기쉽고 일곱재로 잘흡수됨으로 생리 적으로 뼈팔 에백인병독까지 업 새면 다시도지지아니한다

매독병은 선천 후천두가지가잇는대 선천매독(先天梅毒)은 선조상으로부터유전하야 병독을바더가지고 나온병이오 후천매독(後天梅毒)은남녀간 불결한성교(性交)나그러치아니하면 목욕탕 침구변소 변기 (요강)가튼데서전염하는 화류병인대 세상에 제일무서웁고 지독한병이다 한번 걸니면칠팔대(七八代)나무죄한 자손에게까지 유전하야적악(積惡)을 할뿐아니라일신의 비참한최후를맛치게되는것이다 신이끈어지고 코가떠러지고 눈이멀고 목이창이나고 등창이나고 사대육신이 쑤시고 머리가 빠지고심하면 뇌매독이되야 천치가되고 정신병자가되며 급기야에생명을 일케되고만다 독일화류병연 구박사의 발표에의하면 세계인류(人類)의 대적은 곳매독이요 우량한 민족의씨를 말니는것도 곳매독이라고하니 참두려웁고끔찍끔찍한 병이다 이병은전염된후시기와 체질에따라서곳 발생도하고 몃달몃해후에 발생도한다

◎제일긔매독전염된지 삼사일 일주일내로 신에조고만하게뾰루지가난다 그러나심하지아니한 사람은 난듯만듯하게어느틈에 업서지기도하고 또신두가 헐기도하고 곪기도한다 역시일주일쯤되면 업서진다 그러나 곳피로들어가서 전신에돌아버리는것이다 잘못하면 병이전염된줄 모르고그냥 내버둘두는 일이만타

◎제이긔매독신이나 여자음부에는계속하야 나기도하고차차가래톳이스고 구미가업고 신열이잇고 골이쑤시고 몸이가려웁고 여기저기 종기가나기 시작하고 눈이희미하고 머리가 빠지고 얼골에여드름갓치 돗기도하고 몸이느른하고 목이쉬고코가헐고 붉고 멍울이스고 하야 비로서 누구든지 잘알게된다물론이러한 증세가 한번에 나는것은아니다

◎제삼기매독병 독이 전신에깁히 집히들어가서번성하게되야연한、뼈까지(軟骨) 파먹게되는고로 코가떠러지고 등창이나고 목이아조쟁기고 목구멍이 뚜러저서 언청이소리를하고 머리가헐고 눈에백태가끼 고나종에는 멀고 신이둘러빠지고 낭이진물러지고 웬몸이 만창이되고 뇌매독이되어 최후를 맛치게된다 그리하야 자손에게 전염하고민족을점점열등(劣等)으로 만드는 무서운 악질이다 이와가튼 증세에의심이잇든지 매독으로 신음하시는분은 푸로다ㅣ를쓰시오 푸로다ㅣ의효능 매독(梅毒)창독(瘡毒)태독(胎毒)습독(濕毒)선천매독(先天梅毒)감창(疳瘡)후천매독(後天梅毒)매독성류마지쓰(梅毒性僂麻質斯) 약은환약이오 구감이나거나 위장을안상합니다 약갑칠원、오원、삼원 오래되고 중한분은 보통병과다르니 칠원짜리를쓰시오 약은경성서대문 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당일로 비밀히보내드립니다 지방송료(선금)이면 십오전대금인환이면 삼십오전이오

이추부의눈물겨운고백을드르시오이세상의악마는매독입니다

가약

완고증에	칠원
중증엔	오원
경증엔	삼원

지방송료 선금	십오원
대금인환	삼십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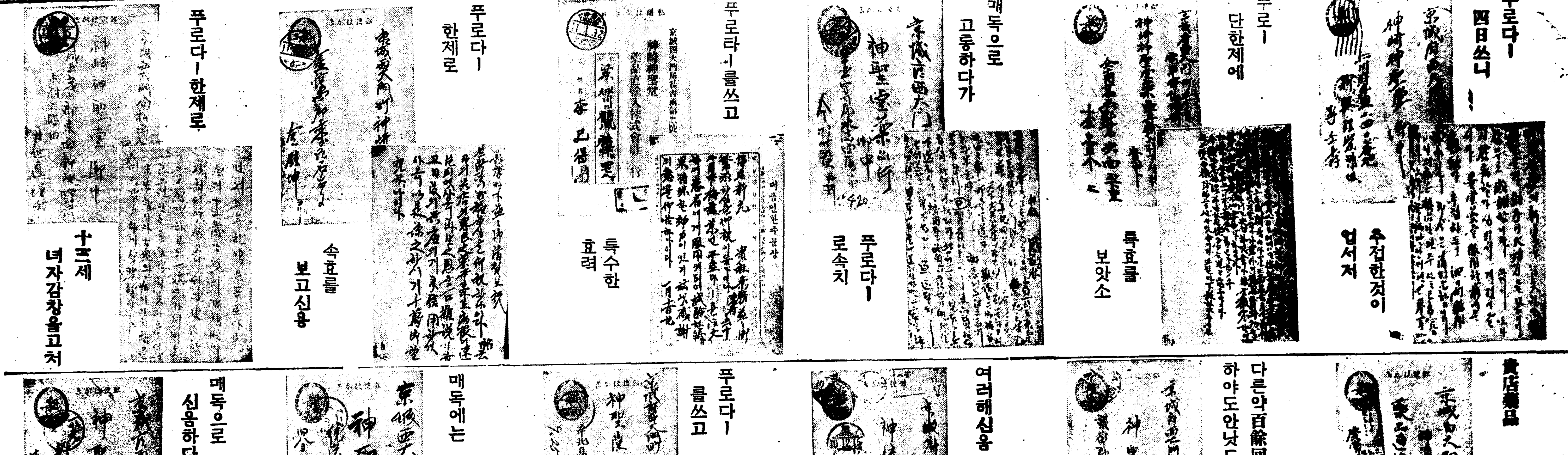
병이 좀심하면 칠원짜리가좃습니다

매독엔 「푸로다ㅣ」로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 제일큰흰벽돌집

電話光三三四三番 ● 振替京城四九五〇番



푸로다ㅣ 四日쓰니 수접한것이 업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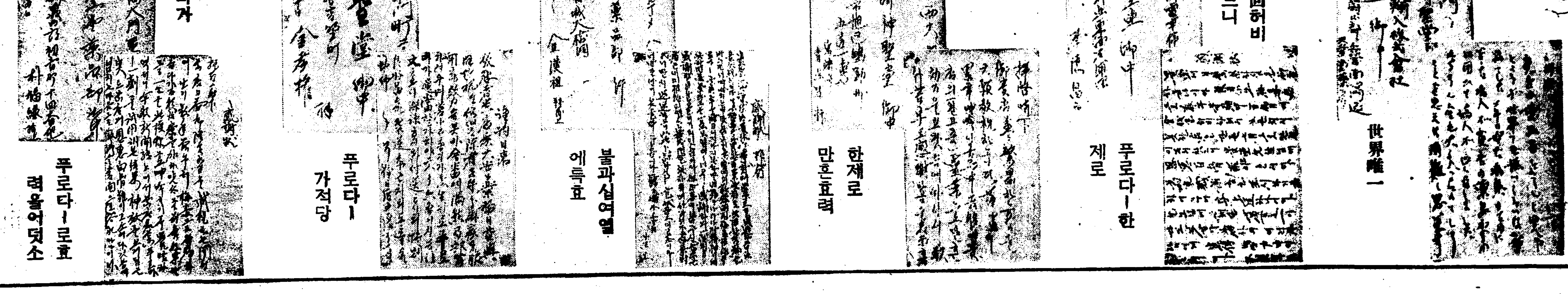
푸로ㅣ 단한제에 특효를 보앗소

매독으로 고통하다가 푸로다ㅣ로속치

푸로타ㅣ를쓰고 특수한 효력

푸로다ㅣ 한제로 속효를 보고신용

푸로다ㅣ한제로 十三세 녀자감창을고처



賣店藥品 世界唯一

다른약百餘回허비하야도안낫드니 푸로다ㅣ한제로

여러해신음 한제로 만흔효력

푸로다ㅣ를쓰고 불과십여열에특효

매독에는 푸로다ㅣ가적당

매독으로 신음하다가 푸로다ㅣ로효력을어덧소

약효가 특별한것은 푸로다ㅣ를 신발명한 때부터 최선학력으로표명한 학자의 자신이잇섯는대 파연발매된후다수한 환자들의 감격한 감사장이 본사로드러오는것을보면 실제로잘듯는것을 증명할수잇습니다 안심하시고 이약을속히쓰시와 악독한병을 절멸하야 건강행복을 누리시오。일시라도속히약을쓰시오

팔월이라 한가위
일년중 제일 밝은 달
회소곡 불르든 안악넨 어듸 가고 지금은 송편의 명절!

내일이 팔월 한가위입니다。일긔조코 달 밝고 곡식이 익고、일년중 참 조흔 때입니다。녜도 녯날 신라시절에는 꼿다운 처녀들과 젊으신 안악네들이 두 편으로 난호이어 질삼부터 길삼을 짜가지고 이 한가위ㅅ날 와서 어느 편이 더 만히 짯나 겨룸을 하얏답니다。진편 이긴편이 다 함께 음식을 차려 노코 밤 이 이슥도록 질기는데 그 중에도 진편에서 구슬픈 회소곡(會蘇曲)을 불러서 매젼의 하소연을 아뢰엿답니다。한가위는 우리네게 잇서 로맨틱한 명절입니다。그러나 우리는 로맨틱한 겨룸과 함께 회소곡을 이저버리고 말앗습니다。오즉 송편의 명절로서 쓸쓸히 전해 올 따름입니다。벳 이야기야 하야서 무엇합니까요。송편에대한 것이나 말슴 드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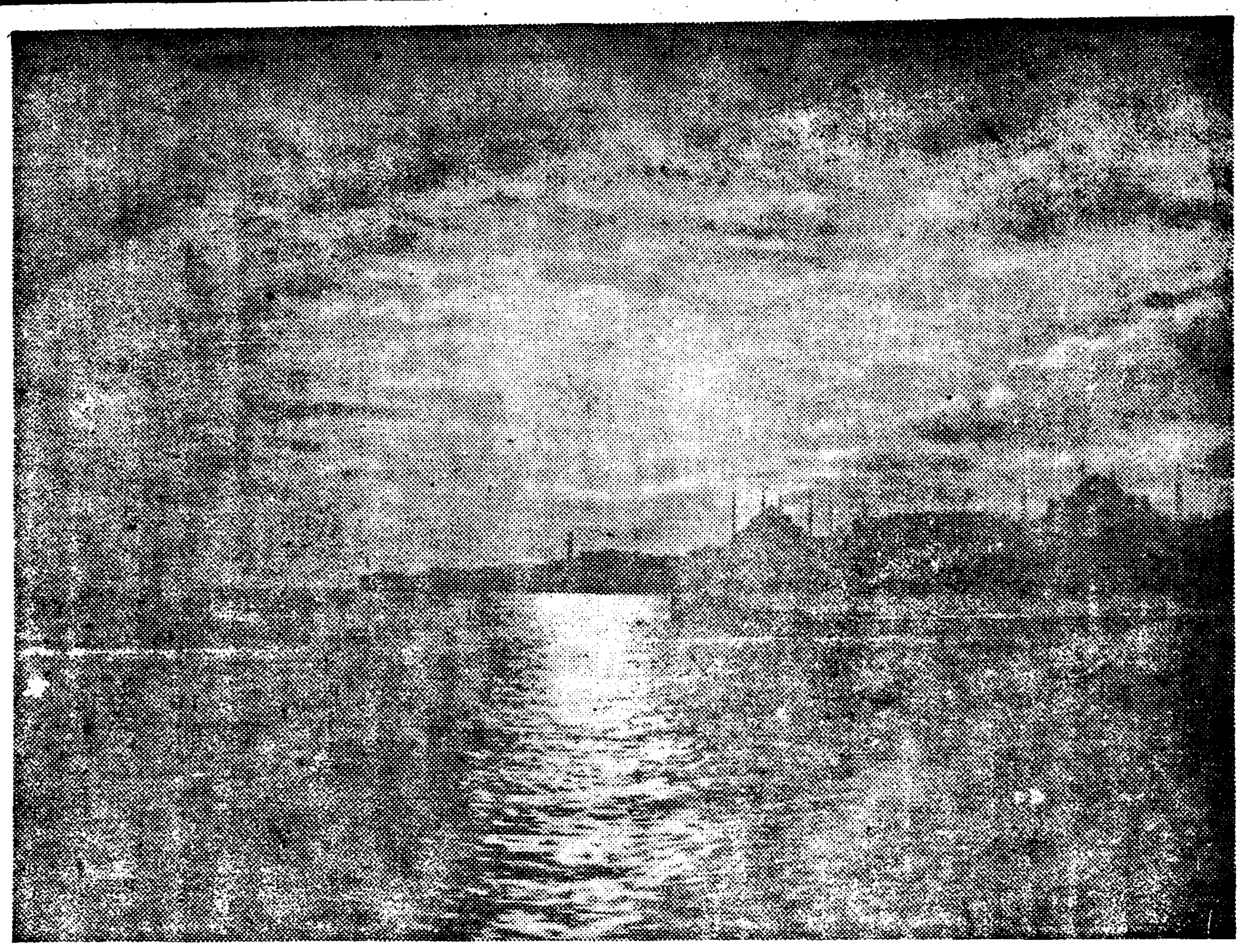
중국사람들은 추석날 월병(月餠)이라고 달가티 둥그러케 떡을 맨들어 먹습니다。조선서도 월병이라고 하는 떡이 업지 안흐나 중국의 월병과 맨드는 것도 다르고 또 혼인때밧게 떡 안습니다。언제적부터 송편이 생기엇는지도 어째서 추석에 송편이 딸아 다니게 되얏는지 그런것은 모다모릅니다。하여튼 요사이 우리네는 송편이 업시는 추석을 거의 못 쇠는 것으로 잘못 알만큼 알게 되야잇습니다。그러나 햅쌀가루로 비저서는 청대콩으로 소를 너코 청솔가지에 쪄내는 추석의 송편이야 말로 운치가 그럴듯 합니다。어느때나 송편을 못 해먹을 것은 아니로되 추석 입시쫄가티 그처럼 운치잇는 송편은 또다시 맨들기 어려울것입니다。인제 알엇습니다。송편이 추석음식으로만 백인것도 까닭이 잇는일입니다。

×

그런데 서울서는 추석날 해먹는 송편도 맛이 아조 업습니다。첫재는 솔을 구하기 곤란하니까 떨나무로 파는 마른 솔까지를 대용합니다。아니 그보담도 멥쌀이고 두고두고 쏘는 솔잎을 말리어 두엇다가 그대로 씁니다。그리고야 말이 송편이지 송편될 때이 잇습니까?둘째로 모냥을 내답시고 새알심이만큼식 조그마케 맨들어놋습니다。더구나 논단이 머리빗듯이 곱게곱게 빗습니다。그러나 송편의 질소한맛이야 다 달아날 것이 아니겟습니까?아모래도 송편은 큼직하고 손까락ㅅ자국이 쩍쩍 백인데다가 솔내가 물신물신 나야만 됩니다。그러치 안흔 송편은 잔치때나 못고지때에는 모르되 추석에는 걸맛지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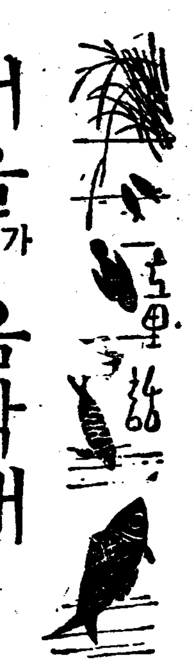
추석에 딸린 음식으로 토란국이 잇습니다。그역시마친제철이라 그러케 된 모양입니다。그리고 서울서는특별히 추석날 김치ㅅ거리로 통배추를 키워서 팔기때문에 통배추김치가 역시 좃습니다。유감으로 금년만은 늣장마에 채마전들이 결단이 나 통배추를 어더보기 귀한듯합니다。



보름ㅅ달

세게에서 가장아름답다는도시『콘스탄틴노불』의 달밤입니다 망망한바다를 아페두고 뻬죽뻬죽소슨사원의 검은그림자。배탄 젊은이의 노래가들립니다。

서울가는 음악대



申泰山

옛날 어느곳에 당나귀가 한 마리잇섯습니다 주인은 늘 그 당나귀에다 곡식을만히 실코서 울가서팔엇습니다。이당나귀도젊엇슬때에는 짐도만히실엇섯고먼 길도 잘단겻습니다마는 이제는 늙어 긔운이업서 조곰만실어도 얼마를가지못하얏습니다。그러나 주인은 가엽시도생각지안코 이늙어빠진당나귀를 내쫏차버렷습니다。

「인간처럼 무정한것은업고나、내가젊엇슬때에는 그러케도저를 위하야 짐을실어다주엇것만 인제늙엇스니 편히수게는하지아코 내여쫏는다나。인제는 쫏겨낫스니 어떠케살어가나」하고·쪼겨난 당나귀는 혼자생각하엿습니다。「올치、올치、서울가서 음악을 하자。」언젠지 한번서울놀나가니가 어떤 사람이 음악을하는데 모도손벽을치고 돈을주드라 낸들 그까짓 음악쯤못할까」이러케생각한 당나귀는 곳서울을향하야 떠낫습니다。

얼마안가서 당나귀는 늙은개 한마리를 만낫습니다。

「너는왜 이러케긔운업시길바닥에두러누엇니」하고당나귀가물엇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우리주인집을 지켜주고잇섯단다。그러치만 주인이그러는데 인젠저개도 늙엇스닛가 잡어나먹겟다고。그래다 러나오긴햇지만 무엇이먹을게잇서야지。이집저집 기웃기웃하면 저놈 도적개라고못매만 만는단다。」

「옹、나도여태까지 일해주든주인에게 쪼겨나서 음악이나해서 버러먹으랴고 지금서울가는길이란다。너도소리할줄알지안니 우리가티가자。」

당나귀와 개는 길을 떠낫습니다。얼마를 가라닛가 하얀고양이 한마리가 길가에서 볏을 쪼이고 안젓습니다。

「넌 여기서 뭘하고잇니」

「난 주인집 쥐를잡어주고 잇섯다。그런데 인제는 늙어서 쥐도 잘못잡는다고 내쫏겻단다 그래도 배가 곱흐면 혹시 밥찌꺼기나 남지안허나하고 드러가면 요놈의 고양이 또두엇하려왓느냐고 몽둥이로 때린단다」

「그럼、얘 우리를 딸어오너라 우리는 서울로 음악하러 가는길이란다」

당나귀와 개와 고양이는 얼마가지안허서 집웅우에 숫닭한마리가 안저잇는것을 보앗습니다。

「너는 거기서 뭘하고잇니」

「난 새벽이면 주인을 깨주고 밥을 어더먹고 잇섯단다。그런데 내일은 귀한손님이 온다고 나를 잡는대。」

「그럼、너도 우리를 딸어오너라。우리는 서울가서 음악해서버러먹는단다。」

이네친구는 부즈런히 거럿습니다만은 반도가지못하야서 해가저물엇습니다。할수업시이곳저곳 잘곳을 차저이히다가 어떤 집에 불이켜잇는것을 보앗습니다。그러나 들창이 노파서 다 볼수가 업섯습니다。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당나귀가 업디리고 그위에 개가타고 개등에고양이가 뛰여올라안고 닭이 고양이 등에 날러올라가서 방안을 엿보앗드니 다섯사람의도독놈들이 고기를구어노코 가진반찬을다차려노코먹고잇습니다。

배가곱흔 닭북구녕에서 「꾸루룩、꾸루룩」소리가 난것도 맛당한일이엿습니다。

「가만잇자、그놈을 어떠케 서먹을가」

하고 당나귀가머리를 기우리고 기단귀를 쫑긋거리엿습니다

「올치、올치、얘들아 우리가 서 음악을시작하자、그래그놈들이 놀래다러나거든 드러가서먹자、옹、자ㅡ사ㅡ작!」

음악은시작되엿습니다。

당나귀는「엉ㅡ으、엉ㅡ으」

개는「멍ㅡ、멍ㅡ」

고양이는「야옹ㅡ、야옹ㅡ」

닭은「꼬끼ㅡ우ㅡ、꼬끼ㅡ우ㅡ」

안에서 먹고 잇든 도적놈들이 깜짝놀랏지요 그저 줄다름을 처서 다러나버렷습니다。

물론 이네친구가 그집을 차지한것은 두말할것도 업습니다 버려노핫든 음식을 모조리 먹고 당나귀는 마당에서 개는 문터에서 고양이는 글상미테서 닭은 글상우에서 잣습니다。밤이 기퍼서 도적놈들이 대체 그게 무슨 소리엿든가하고 그중 대장한놈이 가만이 그집으로 들어와왓습니다 방에들어오는놈의 다리를 개가 버라가티 물어드덧습니다。「에크」하고 놀라뛰는담을 고양이가 뛰여올라 빰을할키엿습니다。문밧그로 나오는놈을 당나귀가 보기조케 뒷발로 거터찻습니다。글상우에 안젓든 닭이 꼬끼ㅡ우ㅡ하고 목청조케 울엇습니다。

대장도독놈이 고만혼이나서달어낫습니다

「애 거긴인젠다시 갈생각도마러라。아유아주 혼낫다。아글세 내말좀들어보아、방엘드러가닛가 한놈이 다리를 붓들어 뜻지안케 이것보아 글세 이자리를 아그래깜작놀래물려스닛가 눈을새별가치 뜬놈이번개불가티 얼굴을 긁거뜻겟지 이것보아 여기빰을 그래마당으로 뛰여나오닛가 아주커단놈이잇다가 주먹으로뚝장을얼르지안케 그리닛가 아마그놈의대장인지 「그놈이리잡어오너라ㅡ。」하고 호령을하겟지

그래서 이네친구는 서울도 가지안코 그집에서 잘살엇답니다。

—(끗)—

귀동냥

살결희게하는데 두부로세수

얼굴살비츨 희게하는데는 반듯이 비누로 세수하여야된다는 것은아닙니다 아침두부 찌개를 만들때 두부한쪽을 조금식 끈허 두엇다가 세수할때 얼골에 문질러씻스면 살결이 고워집니다 몃칠만에 한번식 시험하야 보시지요

담배갑속조희는 안경닥개로쓰자

『마코ㅡ』나 『피존』가튼 담배갑속에는 엷은조희가 드러잇습니다 이것은 다른조희와 달러서 섬유(纖維)가 대단히가늘고 보드러우므로 안경알이나 거울을 닥그면 썩조습니다 더욱이 조히에는 오래동안 담배를싸고 잇던것인까닭에 『니코틴』과 『알카로이드』성분이 드러 잇슴으로 유리에 부튼 때와 김서린것을 잘씻는 작용을 합니다。그냥버리지말고 모두어 두엇다가 리용해보시지요

헌『레코ㅡ드』리용하는법

쓰다가 허러진 축음긔소리판은 버리기는 애석하고 두라니 소용업습니다 이것을 하로밤동안 『알콜』물에 담거두면 양초녹여노흔것가티 눅진눅진해집니다 이것을 나무로만든 그릇이나 사기그릇 안에다 바르면칠로도 아조훌륭한 칠이됩니다。

우리차지

"추석날"

멍석가티 둥근달
쟁반처럼 둥근달
금나락을 거두어서
멍석우에 말렷다가
게수낭구 속을너어
송편을 비저서는
은쟁반에 고여노코
농군들을 불르자。

(글쓴사람 정일란)

그리운 요람시대!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
곡조를 잘 골라듯깁시요 그리고 자조새것을

그리운 요람(搖籃)!어머니의등에어뗘 자애에가득찬 자장가를 듯으며 뜻업는 몸과마음붙쉬이고 잠을 청하는 어린아기!이곳에는 인생의신비가 잇다기보담 차라리성스러운 존엄이숨어잇습니다 낙비뭇치고 무지개 히미한여름저녁때! 매암이 소리요란한마당가 대초나무미테서 어머니가 불러주는자장가의 구절구절은 거치러운파도에 밀리고 부대기여 떨코깨여저버린배쪼각가튼 우리의머리속에도 어느때어듸서오는지도모르게 고요히 싹트는 기억의토막이 아닙니까

이와가티 어렷때듯는소리와곡조는 그어린이의 일생에크나큰 영향을 주는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어린애기에게 우리의어머니는 우리의노래를 들려주엇스며 떠한 요람의 노래를 불러주엇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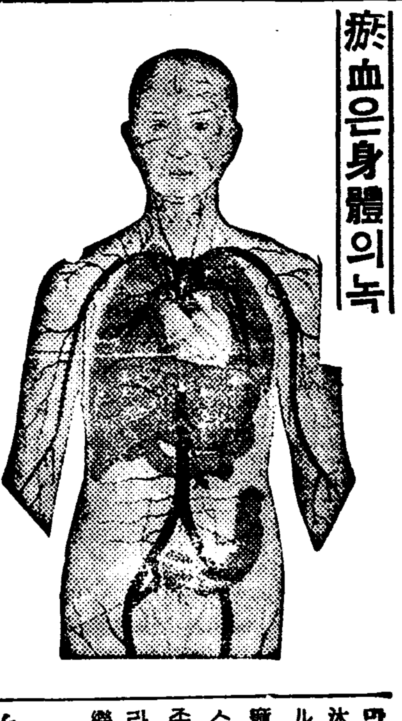
×

어린애기에게는 자라는나히에 따러서들려주는 노래와 곡조도 다르게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날때부터 듯는것이처음이라 하기도 하며 보는것이 듯는것이 얼마나 그아이의 장래에 영향이 크다는것은더 말할나위가 업습니다 세네살부터 여섯살까지는 될수잇는대로 가사보다도 곡조에류의 불만히하고 단순하며 또락한 소리떠도 이런종류를 선택하여 자장가를 불러듯기고 여섯살부터 여덟살까지는 새소리 주장 소리를흉내 넘흔 「레코ㅡ드」나 노래를 불러듯기며 여덟살부터열두살까지는 물소리 바람소리등의 대자연의 정취를 담은것이 좃습니다 열두살부터열여네살까지는 행진곡 가튼용감하고 진취성을 도와주는곡조와 노래가 좃습니다 너무어려운 가사나 복잡한곡조는조치못하며 듯는것이 모다그아이의 교양이되고 지식을도와주도록 하지안흐면 안됩니다

血行が順調になれば 闘病力は旺盛に 心身は健(すこや)かになる

血壓이 놉고、上氣、耳鳴 肩臂痛과 動悸、喘息으로 煩悶하고 手足이 麻痺하거나 혀가 뻣뻣해지는 動脈硬化症이다

瘀血은 身體의 녹



動脈硬化高血壓에 瘀血新療法

自慢과 瘀氣가 업는사람은 업다는 俗談도 잇지만 업는것가티 뵈여도 잇는것은 病毒 이것이 酒煙草의 毒과 肉食毒과 얼키여 變質한 綜合毒素 即古方醫學의『瘀血』이 되여 血液을 粘性을 띄게하야 血分을 妨害하고 前記의 症狀을 惹起한다 이『瘀血』을 現代醫學的 立場에서 古方醫學의 再檢討에 依하야 副作用이 업고 內服藥의 힘으로 穩和하게 體外에 排泄하야 血行을 整齊하고 體質의 改造로 順次괴로운 症狀을 快癒로 引導하는 本療法이 如何히하야 闘病의 實蹟을 내는가

詳細는 瘀血療法 書의 一讀에 依하야 『瘀血』의 무서운것을 알고 其排泄에서 健康에로 참本療法의 利用이 治病의 一助가 된다면 多幸으로 생각하겟슴니다

血壓이 常態까지 떠러저서 腦溢血도 되지안코

福岡縣 橋田五郞

近日 꼭宿醉된것가티 머리가 하미 하야무슨일에든지 손이부지안코友人에게는 過飲한탓이라는말도 듯고근심하고잇든中 前日新聞에서フルチ錠의廣告를 보고너무도내病狀과꼭가트므로 설마라고생각하면서近…만하면조호리라고생각하고잇든바 沐浴湯에서突然卒倒하야(中略)フルチ錠의恩德으로近日은 手足의 麻痺허가뻣뻣해지는것이 적나허스며 血壓도常態까지 떠러저서 좃터繼續服用하면全快할수잇스리라고 생각하고 熱心히 養生을 繼續하고잇습니다

黑便과 瘀血

小屋先生의永年의 經驗과苦心研究한結晶인新順血劑 フルチ錠(下劑가아니다)을 服用하면直接血液에 吸收되여 氣分조케全身을돌면서 『瘀血』을體外에 排泄하야 血液淨化로血管에 彈力을賦與하야 黑便이나오지안흘때까지 保養하면苦悶하든 病狀을自然히快癒케한다

永年의 上氣 眩氣가 薄弱해지고 高血壓이 大端히 나허

新潟縣 小村千代子

(前略)近日나 上氣眩氣는 步行에도 動悸 喘息이 잇스므로 一次醫師에게 診察을바들려고하엿스나 시골이므로 醫院까지는 二十里假量이나되므로 나히만히먹은 나에게는困難이엇스나 여름도지낫스므로 이러서…… 處藥店에서 買求하야服用하엿더니…服用後는 排便이검은빗만잇고 症狀에는別로變함이업섯스나 그後繼續하야 服用하엿더니 어질어질하든 머리가 分明해지고 今日에는 血壓도常態로 떠러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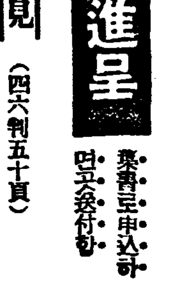
警視廳前吉原遊廓病院 小屋良明先生創製

排毒と順血に フルチ錠

主効 梅毒·胎毒·脊髓癆·高血壓·動脈硬化·腦溢血·中風·狹心症·心悸亢進·甲狀腺·貧血·喘息·リウマチ·神經痛·神經衰弱·ヒステリー·頭痛·常習便秘

十一日分 三 廿二日分 五 五十日分 十

(全國有名藥店にあり)



無代進呈

古醫學에서 新發見

病毒排除 血液循環(めぐり)と瘀血療法(おけつりょうほう) (四六判五十頁)

必讀 ▼頭痛、耳鳴、肩痛 ▼動悸、喘息、寢汗 ▼記憶力이 薄弱하고 手足이마르는분 盜汗으로煩悶하는분 早晨으로苦悶하는분 (梅毒、神經衰弱)

葉書로申込하면 곳送付함

申込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十 古醫學研究所 電話京橋(56)二五八四番·二六三八番 振替口座東京大五三〇八番

安産 키爲하야!

慶林醫學博士 監査
片瀨醫學博士 推奨

カルシューム時代를建設하라!

自古로 難産에는 高價인鹿茸가루를 服用하여사온바 此鹿茸의 主成分은 カルシューム이외다 ワダカルシューム錠은鹿茸과한가지로カルシューム를主劑로하야 거기에 數種의 高貴藥을 配合한것임으로 姙婦와産婦가 이약을 服用하시면 安産은 問題업시됩니다 俗談에 産婦가 産室에들어갈때에 自己의신어든 신을도라보며『저신을 내가 다시 신게될가?!』하는人生最大의 걱정은 問題업이 解消됩니다

健全한玉童子는ㅡ 健全한母體로부터! 健全한母體를맨들기爲하야는ㅡ母體의健康素로도되며、胎兒의發育素로도되는 ワダカルシューム錠의連續愛用이安産秘訣의第一急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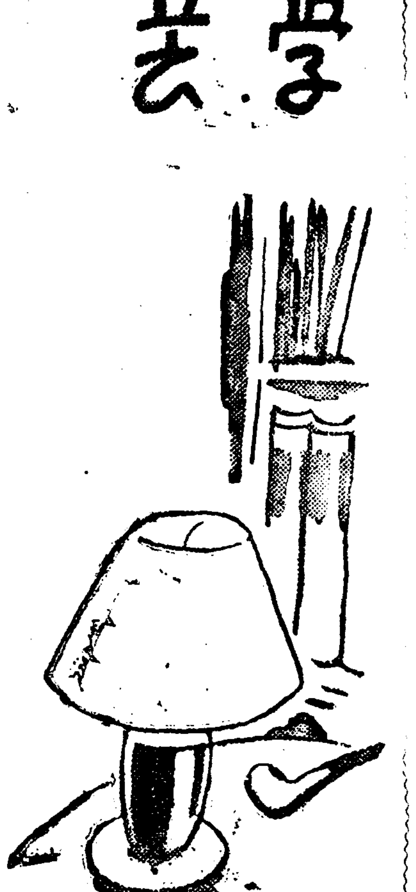
片瀨醫學博士述『安産키爲하야』란冊子無代進呈

大阪道修町 和田卯助商店

ワダカルシューム錠 (와다카루슈ー무錠)

田園에가을드니

學芸



古書에서보는言語變轉攷

(鍼灸經驗方)에對하야 ④

方鍾鉉

이제 그內容을 들어가보면 一一히 目錄을 再記할必要가 업스므로 여기에서는 略하거니와 大槪 처음에 鍼灸할만한 諸穴에 關하야 論하고 다음으로 各症에 分하야 鍼治方을 述하고 附錄삼아 鍼灸에 알아둘 擇日法을 記入하엿다. 卷首에 河陽許任의識이 四枚잇고 最終에 李景奭跋文이 二枚잇으니 이印本은 活字本으로서 참말 조흔體裁의책이다 一行이 十七字이요 一面이十行으로 되엇으니 本文이 七十五枚와 合하야 모도七十七枚로 되엇다

다음으로 이책이 諺解가 아니지마는 病名 或은 物名가튼데에 諺文으로 註釋을 다른것이 잇으니 이것이 諺文을 硏究하는데 一助가 될것을 미드므로 아래에 그全部를 뽑아대로 다 列擧하려고한다

瘰癧은 아히목에도든증(P、29)
癭氣는 아히두편다도든증(、)
齒齲痛은 버레먹는니(P、30)
腰背傴僂는 우븐증(P、37)
脚氣는 分든다리(P、38)
便毒은 가래돗(P、38)
歷節風은 디마다브어알는증(P、39)
痔乳頭내민증(P、44)
龍纏瘡은 증(P、57)
附骨疽는 무나는증(P、58)
腋臍馬刀挾癭은 것마리증(P、58)
皮風瘙癢은 증(P、58)
禾毒은 (P、60)
瘻瘡은 도든증(P、60)
血瘤은 프른피빗(P、60)
虫葬은 노을(P、61)
林瘡은 도든증(P、67)
雀目은 밤에못보는증(、)
腦門不合은 무어원증(P、69)
瘡帽 증(P、71)
擂擂밤은 (P、72)
昏睡露睛은 자며눈뜨는증(P、72)
撮口는 입오그리혀다(P、72)
痘疹은 역질(P、72)
비상(P、58)

大槪 以上과 갓거니와 諺解로된 醫書外 東醫寶鑑湯液篇이며 濟衆新編이며 歷宗損益가튼것에도 藥名을 諺文으로 記錄한것이잇스니 이것을 鄕藥採取月令가튼책에 漢字로 朝鮮語를 表寫한것과 對照하야 硏究의好材料로 提供되는것이다

끄트로 一言을 附加하고저하는것은 朝鮮總督府編纂인 圖書解題에 이 鍼灸經驗方을 論하며 그著者인 許任이 如何한人物인것도 明記하엿다 그러나 以上에서 나는 許任이 如何한來歷을 가진사람인지 全然몰은다고하엿스므로 여기서 그理由를 밝히고저하니 첫재 疑心을 가지게하는것은 圖書解題에 仁祖時의 醫官許任이 鍼灸의 良醫가 엿음을 遺稿으로 생각하야 그經驗한 諸方을 蒐集으로하야 이것을 著述하엿다고하얏스니 이것은 許任이 本來 仁祖朝의醫官임을 말하엿다 그러나 實際로 許任을 說明할때에는 字는仁叟요 陽川人이니 淸白吏晶의孫이며 英祖丙午에 出生하야 甲戌에 宣傳官에 入仕하야 丙子에 武科에 登하고 訓正을 歷하야 官이 西將에 至하얏고 正祖丙辰에 卒하엿다고하엿슴을보아 이 許任은 英祖와正祖때의사람임을 알리는것이 明白이고하나도 仁祖의醫官임을 말할것은 업다

이와가치 時代로 懸隔한 差異를가진 記錄을 몬저 疑心하고 들재로 京城大學圖書館所藏인 印本에 依하야 許任은 河陽人임을 알엇거늘 圖書解題에는 陽川人이라고하엿스니 이點 卽河陽과 陽川이 同一한것인지를 몰라 姓譜를 뒤저보니 全혀 다른것으로 分別되어잇는것이 더욱 이解題를 疑心케하는것이다 무엇보담도 英祖朝의 許任이 仁祖朝의醫官될수가 업는것이고 따라서 仁祖朝에 刊行된 書籍을 著作할수는 도모지 想像할수조차 업는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解題의記錄이 全然 虛構의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仁祖朝의 醫官이든 許任이와 또 英祖以後에 官止亞將인 許任이가 全혀 同姓同名의 別人이라고 미더 陽川許氏의 姓譜를보니 果然 解題의所示와 가튼 許任의 記錄이잇다 그러나 阿陽人 許任은 다른 아모데나 차저내일수가업다 이結果에 이解題의 記錄이 個別的 記錄으로는 信할수잇으나 合하야 聯絡的關係를 맷기는 不可能하다는것이다 卽 이解題에說明된 許任은 鍼灸經驗方을 著作한사람이 아니라는것이다 여기에記錄의 바뀌엿음을 一言附加하는 同時에 本著者인許任이 如何한 人物임을 알고저하는비이다 (丙子九月)

白頭山探險의科學的成果

白頭山의歷史的考察

史話와傳說에서보이는그全貌 (一)

司空桓

白頭山의史話傳說

【가】 神市와檀君、녯날 桓雄天王께서「弘益人間」의 大願等을 이루시려고 天符印三個를 가지시고 무리三千을 거느리시고 太白山 神檀樹下에 나리시서 神市의 靈場을 열으섯다 親히 穀、命、病、刑、善惡、무릇 人間三百餘事를 주장하시고 世上을모다 理化하섯다 그아드님 檀(壇)君께서 原始的國家를 形成하시고 차차 滿洲와 半島大部分을 開拓하시며 德治하섯다 이壇君史話에 對하야 記錄上 不充分한 理由로 抹消 又는 否定하는 所謂 造僞抑說이 東西古今에 만히 流行한듯하나 그것은 史上論難에 지나지못하고 오랜동안 우리의 구든信仰의 뿌리는 到底히 除去하지 못할것이다. 여기에 檀君에對한 白頭山의 關係되는 妙香山、九月山세곳의 史話에 甚히 煩亂하거니와 끈어말하면 이歷代만은 檀君中에 妙香山 또는 九月山에 도읍하신 檀君도 게섯스리라고 생각함이 安當할듯하며 三國遺事와 東國輿地勝覽、高麗史地誌等을 앙상세와서 妙香山、九月山이 檀君의 聖地라고만 主張한다면 이것은 白頭天坪을 한번도 보지못한 無用의 固執이라고 할수밧게업다 예적東方의 强大國으로 扶餘 高句麗 渤海等諸王國의 發祥地가 다 이白頭山이엿으며 우리의 支派인 金淸의 王朝도 또한 이白頭山이 祖興之地로되엇는이다 그럼으로 미상불 諸國에 關한 傳說이 만키로는 다른데에 類例가 드물것이다

(나) 高句麗의 柳花夫人과 東明聖王의誕話

예적에 天帝께서 그아들을 扶餘古都에 내려보내어 임금이되게하시니 이가 곳解慕漱라 그가 하늘로서 내려올새 오룡車를 탓으며 侍從者 百餘人이 다 白鵠과 彩雲을 타고 우에떳는데 풍류소리가 구름가운데를 움직이는지라 熊心山에 머무다가 十餘日을지나 내려왓는데 頭上에는 鳥羽冠을쓰고 허리에는 龍光劍을 메엇으며 아침이면 政事를보고 저녁이면 하늘로올나가니 世上에서 이를 天王郞이라하엿다. 北扶餘 西北便에 淸河(시방鴨綠江?)河伯이잇고 河伯의 따님에 柳花 萱花 葦花 셋이잇으니 모다 얼골이 꼽고 妖艶하야 아름다웟다. 그들이 하로는 그近處 熊心淵옷가에 나가놀다가 解慕漱王을 보고 卽時水中으로 드러가려하엿다 王은 채축으로 따를 그어 銅室을만들고 자리를배푸러 그辭次의 前에 柳花를 誘致하야 纏合하고 여희니 河伯이 처음에는 크게怒하야 使者를보내 그無禮함을 詰責하드니 王을 龍宮에마저안지고 여러가지 行한 異蹟을 보아 이 分明天帝의 아드님인줄 안뒤에는 婚禮를가추어 成婚하엿다 뒤에 王은 柳花夫人을 버리고 홀로 龍車에 몸을부처 하늘에 올나가거늘 河伯은 그長女가 이미婚姻된고로 이것이 家門에 큰 辱을 끼친것이라하야 끈아름으로 그주둥이를매여 잡아단기어 길이가 석자나 느러나게하고 太白山 南쪽優渤水에 귀양보내엇다

現代英詩의動向

여러가지流派와그作家들 (一)

林學洙

最近十餘年間에 英詩壇은 奔馬가티 만은變遷을 바더왓다。「一言으로 하건대 主情主義에서 主智主義로 다시그것을 土臺로한 新理想主義로 進展되여왓스며、그사이에 잇서서 가장뚜렷한 役割을 한것은「T・S・엘리오트」이다。

그들의 流派別로본다면 主情的田園詩를 쓰는 大戰以前부터 活動하야 오던「죠지안詩派」와 具像的描寫와 輪廓의整頓과 自由詩形을 取하는「이매지스트」과 建築과 彫刻의 要素를 取入하야 嘲誠케하는「싯웰派」를 들수잇다。그러나 傳統主義에 叛旗를 든 어後者의 두流派는 要컨대 大戰과 工業革命과 機械文明으로 하야 社會情勢가 全般的으로 新陳代謝할려는 過渡期에 出現한 一時的 興奮劑와 淸凉劑에 지나지못하는 卽過渡期의 詩派요 內容的으로든 何等의 革新이업시 다만傳統的文學의形式에 對한倦怠感과 複雜하야진生活로말미아마 複雜하야진 神經을 刺戟하기에 幾分의 技巧를 戲弄하야 自慰하려한것이니 이表面上만의 改新이 生命이 길理가업섯다。더구나처음부터 旗幟가 鮮明치못하고 優秀한詩人을 가지지못한「이매지스트」은 滅亡한지이미오라며 奇拔과 그로테스크한 空想을파는 欺瞞家「싯웰派」에도 命脈이 盡한지 이미오라다。(그들에比하야 前者에屬하는『에이츠』『메이스필드』『드・라・메아』『호지손』『블라덴』等이 아직도꾸준히 活動을繼續하고 잇음은 慶賀할일이다。)

이렇지음에잇서서 斷然頭角을나타낸것은 T・S・엘리옷의主智主義文學이엇다。그의理智的詩風은 二三年前까지 英詩壇에 最大의 勢力을가지게되엇스니 今日旗川하며잇는新進詩人도 거이全部가 한번씩은 그의主義의 洗禮를밧은사람들이다。그는雜多한 敎養을가진사람으로 社會와道德을批判함에잇서서 이混沌한情勢下에서 絕望이 頻頻히나타나잇슴을보다 安心立命할수업는 現代知識層의 이런意味에서 그도結局은 한過渡期의詩人임을免치못할것이다。그러나 現代에『클라씨시즘』을再移入하고 그와 新興文學의사이에서서 다리를거려준 그의功績은 크다고아니할수업다。그에對하야는 이미만히紹介되여잇기에 愚見을省略하고 今年五月號의『런던머ー큐리』에실린『미카엘・로버ー츠』의 엘리옷論에서 (그는또한알에서紹介하려는 로버ー츠詩에對한 意見의一端을 알게도되겟기에)두어句 引用함에 그치려한다。

一慧…超…詩…五…首一 (中)

无涯

二、南天路述懷

月夜□□路、浮雲颯颯歸。緘書參去便、風急不聽迴。我國天岸北、他邦地角西。日南無有鴈、誰爲向林飛。

中天國을 지나 三個月餘를 南行하야 南天竺國都城에 이르럿다 (지금那色 Nasik 附近地方) 그로부터 龍樹가 夜叉神을 시켜建造하엿다는 절아픔 經由하야 南印度를 지나가면서 途中에지은 思鄕詩篇이 이것이다。題는「于時、在南天路、爲言曰」이라 하엿다。

『我國天岸北』의『我國』은 毋論、그가 萬里絕域 에서 멀리 東北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新羅일것이다。그는 海路로 入竺한 故로『日南無有鴈』이라 하엿다。札記에는 言及이업스나『林』은 雞林의 謂가 아닐까。그러타면 該字는 上林과 雞林의 兩義를 寓함일것이다。

三、那揭羅寺、傷漢僧

故里燈無主、他方寶樹摧、神靈去何處、玉貌已成灰。憶想哀情切、悲君願不隨。孰知鄕國路、空見白雲歸。

이詩를 지케된 動機는 詩바로우에 다음과가티 적혀잇다。山中有一寺、名那揭羅馱那、有一漢僧、於此寺身亡。彼大德說、從中天來、明閑三藏聖敎、將欲還鄕、忽然違和、便卽化矣。于時聞說。莫不傷心。便題四韻。以悲冥路。

멀리 絕域에 修道하러왓다가 客死한 唐僧을 哀悼한것이다。이一篇은 그가 北印度閻爛達那國에 가서 읊은것이다。

詩中의 那揭羅馱那 Nagadhana寺라하엿다。第七句 孰字는 羅氏의札記에 言及이 업스나、혹시 熟字의 謂가 아닌는지。딴은 孰으로도 通치 안흠은 아니다。

또 第四句『玉貌』의 玉字는 玉誤가 아닐까。

林檎의晩歌

金起林

山골 할머니들이 광우리가아니고 자루에다가 따린따린 능금을 장터 너머서이고 장으로안오기 시작한것도 벌서 오래전부렷일이다。

능금뿐아니라 늙 왜지、머루、다래조차 요지음은 도모지 장에 오질안는다。아마도 우리들의 다음대부터는 능금이나 놀에대한 味覺은 訓民正音이나 상투나 보선이나 族譜나 마찬가지로 아주 이저버리고 말상십다。늙은이들은 이러한 일에도 鄕壤錄의傳說조차 맨드러서 펄친다。

능금의 退潮는 勿論 우리가 지금알고잇는 사과 또는 苹果혹은 林檎이라고 부르고 쓰는 새종자가 書畵드린오뒤의 일이다。여기서도 優勝劣敗의法則은 사정이업엇다。오늘 능금의運命은 紅人種과〃강가루〃의 한 복과 그러한 모―든退却하는것의 運命이다。섹실 拾錢짜리 白銅한푼만 내던지면 저威鏡道와 바지에서라도 일홈 달롱한 色조히를 곱게두른 어요 黃州林檎을 세개흔은 네개식 쉬사리바터먹을수가 잇는 世代에 누가 그시금떨떨한 능금을 사먹을라고?

집만이라도 文化住宅이 아니냐?아니 거리에 나올적만이라도 文化生活이 아니냐?洋服을 걸치고 〃수팡〃치마를 입고서야 어찌 顏面만으로라도 능금광우리아페 마조설가보냐?오늘능금의 輓歌를쓰는것은 아마그 이상업시 미련한일일게다。마땅히 林檎의 繁榮記를써야 올흘상십다。

그래그런지 나는 어느展覽會에서도 능금을 그린 靜物을보지못하얏다 그대신 林檎을 그리지안흔 靜物을 얼마 보지못햇다。그 붉다붉다 못해서 타는듯한 罪빗을한 이열매는 食慾이라는」보단 차라리 一種犯行을 敎唆하는것가티 보인다 그러기에 數千萬이스라엘백성을과 그리고 그뒤로도 오늘까지 數億萬의 基督教人을 魅惑시킨 佳篇「創世記」속에서 人類의祖上「이브」를 罪로 유인한것도

실로 한개의 붉은林檎이엿다。白玉가튼 그이빨에 핏빗(林檎을깨물어서 그는 女性最初의「깨다름」을 맛보기로 된것는지도모른다。

西洋 基督教人들은 地獄은미워하면서도 林檎은 罪惡와 罪와합께 그리 실허하지안는다。도리혀 더욱더욱 旺盛하게 그것을 먹는다。날것으로 먹다못해서〃파이〃를 맨드러먹고 비저서 술을 맨드러 먹고 구어서꿀을 처서먹는다。그러니까그들은 점점狡猾한 知慧가 날로 늘어갈밧게업다。그러므로 作家 李孝石氏가 林檎을 조아한다고할때에 나는 그일에서 一種近代的異敎의냄새를、맛고우섯스며 또食卓위에 힌접시에 바처노흔 한알의 林檎을 구버볼때마다 그妖艶한빗갈을통해서 人類萬代의 큰悲劇的傳說과 奇蹟을 肯定하지안코는마지안는다。저 現代의 수업는「이브」들이 失手의 첫거룸을 빗내 드리는것도 흔이는 茶店이나「레스토ー랑」에서 젊은배암과 마조안저서「애플파이」나 林檎조각을 포ー크창에 찍어서 입술로 가저가는瞬間일게다。

事實「비타민C」가 만타든가 智慧가 난다든가 하는 속의理由는 아주 不問에부치고도 가을날 이른아츰 林檎나무에서이슬매친 열매를 손수따서 껍질채로 먹어보는맛이란실로 비할데업는 絕味의 하나다。우리는 往往 恣바게 垂直으로 떠러지는 한입새落葉에서 가을을 느끼기전에 혀끄테상긋한 한조각 林檎에서 벌서 먼들에 靜寂할 가을의 가치를味覺하기도한다。

그러나 林檎은 반드시 가을에만잇는 과일이 아니다。여름부터 느진가을로 향해서 紅魁에서비롯해서 柳玉 祝 旭 紅玉 鶴卵 鳳凰卵 倭錦 〃비스막〃國光 雪等等실로 철을따라서 그種類가 적지안타。그중에서대체로 여름에는 祝이 逸味요가을林檎으로는 무르녹는 香氣를 풍기는鳳凰卵맛이 제일이라고들 한다。하지만나는 그러한 通說에도 不拘하고 가을날 입사귀 드문 가지가지에달려 마치 季節의 心臟인것처럼 붉게타는紅玉을 제일조아한다。그것은 반드시 그凝脇한 빗갈때문만이아니다。맛에 잇서서도 祝의 大衆性이나 鳳凰卵의 貴族性과는 판 판인 多少野性的이라고할 그시고단激烈한 맛이 저土人의따님을 생각케하도록印象的인까닭이다。

내가 이번에집을 떠날때까지는 아직도 紅玉은 봉지속에서 푸른대로잇섯다。

그러나 祝은 아주 무르익엇섯다。아츰 저녁으로 或은 십어보는 그맛이 그래도 臨終을 알룬 느진여름의 지튼 터위를 니저버리기에 足하다。

그래 나는 행여 어느 뜻하지아니한벗이 멀리서 차저오면 가티그 佳味를 난홀가해서 우리안의암닭과 함끠祝을 한나무만 남겨두게햇다。

祝나무에 열매가 드문날아츰 나는 行裝을 꾸려야햇다。안해는 암닭과 祝의處分에 대해서 내意見을 뭇는다 나는 우스면서 닭은 잡기로하고 祝은 모조리 따라고 햇다。그러곤 벗에게 편지를 쓰면서 끄테 이런 戲時調노래를 적어보냇다。

우리안 씨암닭은
살이쩌서 동동보고
섬돌압 林檎나무
가지가지 묵겁건만
參客이 어르지안으매
내 다먹고 가고저。

一漢詩一

『蓮』一押心　桐岡考選

佳作三之七　橋北町二六　壽城山人

種得池塘日復尋・
清香浮動滿衣襟・
葉收細雨明珠積・
花覆空汀繡幄深・
不塵可適幽人趣・
宜佩能遙採女心・
精華本是仙家物・
枕月山窓愛一吟・

新刊紹介

▲朝鮮實業俱樂部 九月號 發行所 京城太平通一丁目二五 朝鮮實業俱樂部社 振替京城八五四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講臺指南 劉如大牧師著 發行所 新義州府眞砂町四丁目三 光明社 振替京城一五九八六番 定價三十錢

▲偉人奇談 劉如大牧師著 發行所 新義州府眞砂町四丁目三 光明社 振替京城一五九八六番 定價三十五錢

▲三四文學第三年第五輯 (Quatre) 發行所 京城府壽松町四五 世紀律 振替京城二一五〇一八番 定價二十錢

ムシ歯にならぬ方法

先生과어머니들께말슴합니다!

小學校敎科書卷三의 二十三에 兒童의虫齒에對하야 注意해야한다는것이잇지만 虫齒兒童은年年增加하는寒心한傾向이이잇습니다。이무서운虫齒를防止함에는 三四歲부터 구라부齒磨와가튼殺菌力이잇는齒磨를使用하는習慣을 길러주는것이 가장조흔方法이라고 齒科先生이말슴하십니다

齒磨는殺菌力이必要하다

구라부齒磨는殺菌劑로서無比의性能을가진구로루칼바구로ー루(專賣特許第一一五二六二號)及요ー도치모ー루를應用한他에비길데업는齒磨입니다 이러한殺菌劑는모도數萬倍의稀薄케한液에도結核菌 치푸쓰菌 지푸테리아菌等을곳死滅식히는效力이强한것입니다 그러므로구라부齒磨를使用하면虫齒의原因이되는무서운微菌을防止하고또齒舍을熱湯으로一一히消毒할必要가업습니다

齒科先生이推奬한다

朝夕規則的으로구라부齒磨를使用하십시오! 虫齒가안될뿐만아니라齒牙와齒齦을健全케하고히고아름다운齒牙를만듭니다 또그맛과쏠룸은어떤어린애든지조화할爽快한것입니다 구라부齒磨는兒童의保護와衛生上絕對的으로必要하다고齒科先生이推奬하고잇습니다

專賣特許

クラブ歯磨

一五錢・三〇錢・四六錢　半煉一六錢

連載野談 (二六)

布囊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마룰캐든총각 (十四)

진평대왕께서 선화공주를 불에 태어 죽이라는 령을 내리시매 조정의 대관들과 여섯마을 초장은 너머나 황겁하야어찌할줄을 몰랏다。

더욱이 왕비께서는 선화공주를 부둥켜안으시고

『공주아기! 이것이 어인일일고。행한일을 행한대로 자셔히 말하면 중한 죄를 당할지언정 내눈에 의차한 일은 보이지 아니할드리가 업지아니할것을 이 어인일인고 말을해봐!。』

하시며 늣겨 우시기를 마지아니하신다。

『황송하오 황송하오 어마마마께 엿줍기 황송하온것을 알외오。이몸은 일만번 불에타 죽사와도 그런일은 업사온것을 진정으로 알외오。』

하며 선화공주도 왕비의 손을 바들어 쥐고안저서 통곡하기를 마지 아니하얏다。

『아아 진정 그럴것이야。그러나 이것을 누가 밝히여 주지아니할러인가。그 깨끗한마음과 몸으로써 불에 태워죽이는 그런 형벌중에도 더러운 형별로써 죽는단말이 이 어인 천도가 무심한일이야。』

하며 왕비께서는 더욱 늣겨우시며 선화공주의 부잡으신몸을 차마 노치못하시엿다。

그런데 진평대왕께서 선화공주를 불에 태워 죽이라는 령을 내리신것은 신라국의 률법이오 또는 신라국의 큰 나라풍속(國俗)대로 죽이시려는이엇다。

매저 신라에서는 녀자로써음행을 행한 녀자는 반드시 죽이되 불에 태워죽이는것이니 첫재는 그깨끗지 못한 녀자는 비록 죽은 시체라도 신라의 깨끗한 흙에 무들수업다는것이오 또하나는 그런 부정한 녀자를 태워 죽이는 붉은 불길과 거문 연기로써 여러녀자들을 경계 식히는 뜻이엿다。

그럼으로 신라사람은 남녀를 물론하고 여러 형벌중에도 이회형(火刑)을 제일 더럽고 무서운 형벌로 역이고 여러가지의 죽엄중에도 그화형으로써 죽는것을 제일 부끄럽고 더러운죽엄으로써 생각하얏다。

그런데 … 엄숙의 … 선화공주로써 그 더럽고 붉으려운 화형을 당하야 죽게됨에잇서 얼마나 붉으럽다하리。

이러틋 선화공주가 화형으로써 죽게되다는것은 오직 대궐안 사람들에게만 알인것이 아니오 벌서 그소문이 서울안에 죽 퍼지엿다。

이소문을 들은 여러 백성들은 남녀를 물론하고

『변고지!。변고여!。공주님으로써 불에 타죽게되다니 그런 변고가 어데잇서。이러망칙한 변고는 우리나라에 처음일것이야。변고지。변고라도그런 변고가 어데잇담!』

하며 여러 사람들은 만나는대로 서로 선화공주가 불에 타죽게된것을 큰 이야기거리로써 수군대이엿다。

그런데 선화공주가 장차불에 타 죽게되어다는 소문이 떠돌자 여러아이들은 전보담도 더욱극성스럽게

『선화공주님은 남몰래남몰래 시집가시려고 밤만들아오면 서동방단여가신대요。』

하며 거리、거리、골목、골목에서 떠들어 대엇다。

그리는중 나히가 좀더 어린 아이들은 그 노래를 줄여서

『선화공주님은 서동방에 몰내몰내 시집가신대요。』

하며 선화공주가 불에 타죽는지 물에 빠저 죽는지 모두모르는체하고 큰 소리로써 거리와 골목이 떠나가도록 놉히소리를 질으고 다니엿다。

이때 여러 백성들중에 나히 늙수구레한 녀자들은 아이들이 그러케 극성스럽게 부르는 그 노래를 들을때

『이놈들아 듯기슬혀!。너히들의 떠들음 소리로해서 공주님이 죽게되셧다。이상도하지 사람이 죽을때에 까마귀는 운다지만。선화공주님이 죽는데는 저애놈의 색기들이 까마귀노릇을해!。』

하며 선화공주가 죄아잇든 업든 불에 타죽게된것이 딱 그 아이들의 떠들음으로 죽게된것을 가엽시 생각하고 그아이들이떠드는것을 인제는 징그러케 들엇다。

그런데 그아이들이 떠 극성스럽게 떠드는 소문은 막을내야 막을수업시 작구작구 대궐안으로 전하게 되엿다。

이에 진평대왕께서는 화형의 긔구를 재축하시니 그불은 불비츤 하늘을 찌르듯。그검은 연기는 공중을 가리웟다。

百發百中의칸타

『선화공주님은 남몰래남몰래 성스럽게』

유나이텟드·아리스스의 칸타映畵로 노만탈록의監督이요 에셀、마만과사리、아이라스의助演이다。二十九日부터 市內團成社에서上演

라디오

二十九日 (火曜)

◇午後六時 合唱
一、나물캐는처녀…金享俊作曲
二、생물근처……카나다民謠
三、듯기조화요……日本 民謠
四、자장가…………金享俊作曲
五、군악대장단……루ー트作曲
六、우리집은배한척 ……러시아民謠
七、숨바질…………丁抹民謠
八、아름다운꼿이여…中國民謠
眞信女普校合唱隊 指揮 金享俊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吳基先

◇同七時三〇分 講演 日常生活에必要한法律멧가지 金檍

◇同八時 雅樂 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 一、絃樂 鳳凰吟(樂器)牙箏、笑琴、唐笛 二、管樂 金殿樂(樂器)簫篥、大笒、笑琴、唐笛、杖鼓、座鼓 李王職雅樂部員 指揮雅樂師長 咸和鎭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梧桐秋夜…全壽麟作曲 二、고달픈身勢…同 三、二八靑春…同 四、갈대꼿…同 五、酒店의밤…松平信傳作曲 六、沙漠의나그네…羅素雲作曲 伴奏DK管絃團 李圭南

◇同九時 時調 一、時調 二、遊山歌 三、제비歌 四、執杖歌 五、달거리 李飛鳳 張彩瑄

第一放送

◇午後六時 (大) 津田童話劇B・K고도모서클

◇同六時二五分 講座 菊池直次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服部一雄

◇同八時 (大) 라듸오、드라마 岡田嘉子

◇同八時四〇分 (仙) 國淨瑠璃 鈴木士宰龍

◇同九時 (東) 라듸오小說 演出 山本嘉次郞

三十日 (水曜)

◇午後〇時五分 (東) 로ー키ー中繼

◇同一時一五分 常識講演 嘉俳節의由來와行事 金遵泰

◇同六時 唱歌劇『海金剛』(鄭寅燮作) 少女(나종엔人魚)…文英姬 나그네…金相德 아버지…金銀星 어머니…李容浣 黠父(一)…劉根春 同(二)…朴漢樂 海女(一)…金錦蘭 同(二)…韓銀淑 갈매기 (一)…韓瓊鍚 同(二)…劉甲順 두루미會 演出 金相德 效果 效果班 伴奏 두루미會伴奏團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 가을의天體 趙炳俊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仲秋明月에나타난詩歌 李光洙

仲秋明月의밤

◇同八時 農夫歌外 一、花草四巨里 二、호미타령 三、農夫歌 姜太弘 吳太石 丁南希 趙相鮮 曺鶴鎭 林小香

◇同八時三〇分 歌曲外 一、界面頭嶺 二、弄 三、羽樂 四、環界樂 五、編 金鳳仙 金春子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京城立唱 一、놀냥 二、산타령 三、뒷산타령 蘇完俊 韓仁學 柳開東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 基礎英語講座(四) 飄谷榮

◇同一〇時三〇分 (大) 家庭敎育講座 今田惠

◇午後零時五分 (東) 로ー키中繼

◇同二時 (大) 婦人時間 大林宗嗣

◇同六時 (東) 童話劇 東京放送童話劇協會

◇同六時三〇分 (大) 冠歌會

◇同八時二〇分 (東) 라듸오聯盟

◇同九時五分 (名) 今泉流觀月歌會 宇治山田市倉田山에서中繼

一日 (木曜)

◇午後〇時五分 레코ー드音樂

◇同一時二〇分 伽倻琴併唱 一、短歌…竹杖芒鞋 二、唱劇調…흥타령 韓鳳煥 鼓手 池龍九

◇同六時 童話 李定鎬

◇同六時二五分 講演 始政二十六週年을當하야 亞西亞協會幹事 高羲駿

◇同七時三〇分 音律 一、羽調 二、줄자진한닙 三、자진한닙 四、界樂 五、編 六、別羽調 咸角窯 金萬三

◇同八時 野談『大大腹』 申鼎言 大笒 方龍鉉 笑琴 金奉業 杖鼓 金仁昊

◇同八、三〇 時調外 一、時調 二、小春香歌 三、執杖歌 四、방아타령 趙牧丹 金眞紅

◇同九時 大笒獨奏 一、散調 二、灣雲吹 朴鍾基 杖鼓 韓成俊

◇同九時一五分 다듬이소리 開城高普劇研究會 … 全國中繼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 基礎佛語講座(五) 丸山順太郞

◇同一〇時三〇分 (東) 婦人時間

◇同一一時 講演

◇午後〇時五分 맨돌린合奏

◇同一時一〇分 長唄 中村六八郞、伊藤保春

◇同四時一〇 (札) 大元帥陛下大本營御着御模樣

◇同六時 童話 山田俊盛

◇同七時三〇 (札) 講演 西尾壽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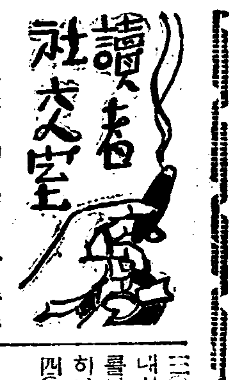
◇同八時 (東) 物語 大友壯藝 春日芳子

◇同八時三〇分 (東) 長唄 吉住小桃次

◇同九時 (名) 歌謠曲 豆子代

◇同九時一五分 다듬이소리

讀者社交室



◆農村啓蒙에 뜻을 둔 靑年諸君!! 조고마한 學院先生으로 招聘하겟스니 希望하시는 분은 左記住所로 履歷書와 寫眞添付하야 申込하시기비옵니다 直接오시는것이 좃켓습니다…報酬는 相當치못하드라도 마음이만흐오니

京城府益善洞七八ノ二 金四龍

◆江華 池島萬里氏께! 몸으로 金炳德은 現在卒業하시고 …

…三〇七番地 自宅에서 나날을보내시며 趣味는 每月婦人俱樂部를보시고게십니다 其他雜誌도만히보시는듯합니다

黃州面赤壁里四〇番地 李淑讓

◆生은 減農校를 卒業後 某寫眞校를 卒業한 當年二十一歲男子이온데 資金問題로 開業하지못하옵고 萬方으로 求職中이오니 何處何事를 勿論하고 하야볼 決心이오니 本報讀者各位는 널리 살펴 生이 할만한일이 잇거든 本報讀者社交室로 通知하야주시기 바랍니다。 一求職男

◆滿洲에게신農村同胞에게 는農事改良과敎育事業에 投身코저하오니 有意하신분은 紙上으로回示하시오 但月給은求하지안코 農夫로對接하면 滿足입니다

咸南 金農夫

◆九月二十六日本紙上에 記載한二十歲求職處女에게傳함 貴下의履歷書와寫眞其他仔細한글을同封하야 左記住所로 下送하야주시오면 職業을求하야 드리겟삽나이다

成鏡線馬場驛前金運方 鄭淑貞

◆本人은當年二十四歲의 男子이온대社交室을 通하야配匹을求하라합니다 本人의學識은 高普三年修了하고 歸鄕하야 農業에從事中이요 初婚에失敗하엿삽니다 相對者의學歷은 普校程度로 性格이溫順하며 發育이完全한女性으로 年歲는十九歲로二十一歲까지 初再婚을 不願하오니 有意하신분은 本報社交室로通知하여주시면 本人의住所를回示하겟나이다

咸南定平 求婚生

◆滿天下讀者諸位에게 말슴합니다 여러분中 或四海公論定價二十錢式되던後로부터 今年八月號까지를 가지신분이게시면 보기좋하게落書나또는 冊帳을뜻더내지안흔것에限하야 一部에定價의半額인十錢式에사겟사오니 全部를가지신분은더욱조코 其中一部만가지신분이 게시드래도左記所로보내주시든지 或은月號數를記載하야通知해주시면 代金을送金하겟습니다

全北新泰仁 辛洙俊

★曆★

九月三十日 (水) 乙卯・水・堅・破 建丁酉八月小(十五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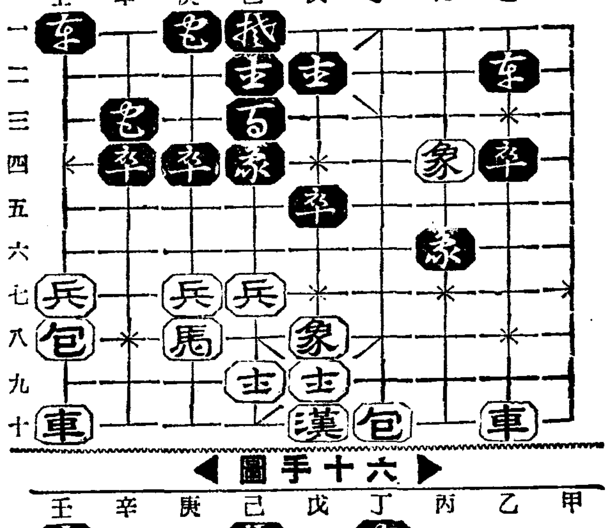
●秋分二十三日(舊初八日)

●寒露八日(舊二十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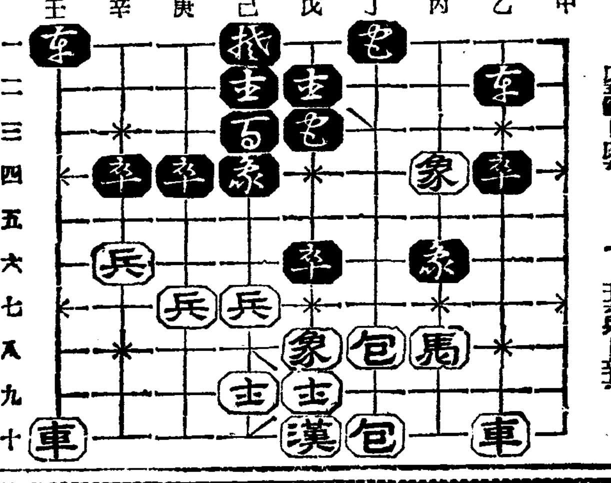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六)

先手 全于石 漢 李在鳳

五十手圖



六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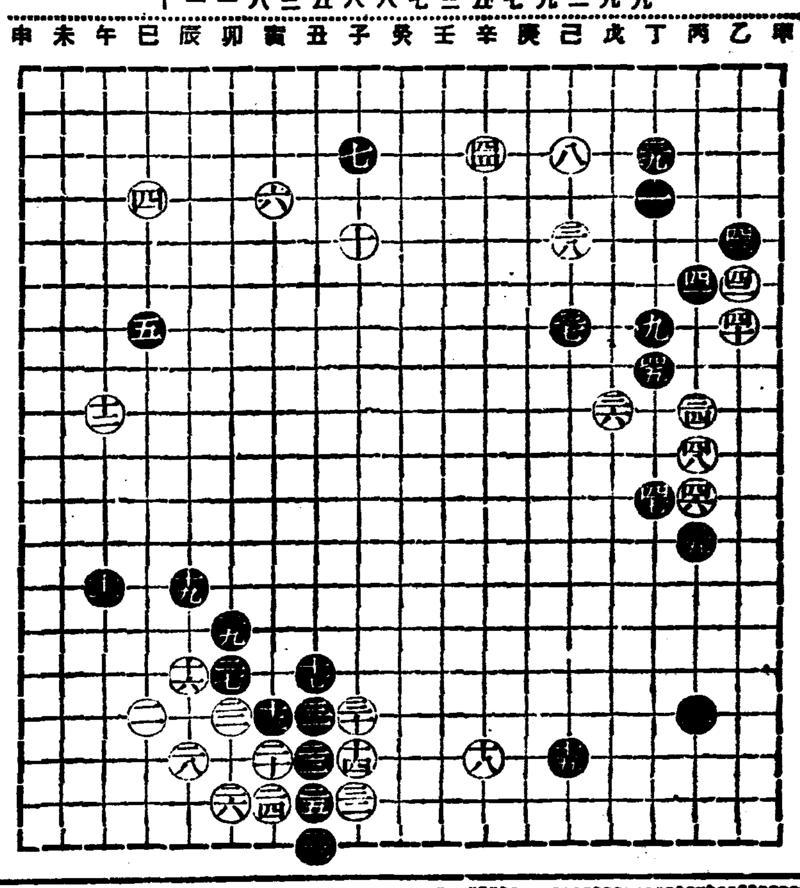


壬一●一辛一 庚八馬一戊七 辛三●一戊三 壬六包一丁八 戊五●一戊六

戊七馬一丙八 辛一●一壬一 壬七兵一壬六 庚一●一丁一 壬六兵一辛六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一3一

白 裵福文
黑先 丁奎泰



丑의十九 丙의九 丙의十二 戊의九 己의七 己의五 丁의三 乙의七 丙의六 乙의六 乙의五 辛의三 丁의八 丙의十一 丁의十一 丙의十

對局者談

白 丙의九 入着이 時局形便으론 近似하고 黑 丁의三 對應의 白 辛의三이 亦近之하듯 白 丙의十一 挾着은 黑丁의十一이 拔作方針의 緊味가 잇슴을 默認하노라

肌アレは美容の敵

若肌의 守護

レートクレーム

레ー도구레ー무

가을의乾燥한空氣·찬바람은살결을거칠게하고기미 부룸 잔수룸等을 繁殖식히는故로……乳化의 完全한……濃度가놉고…레ー도구레ー무로살결에適當한 潤澤을給與하고 皮脂의不足을整齊하야柔軟滑澤한美肌를培養할必要가잇습니다 레ー도구레ー무의優秀한有効成分은 곳살결에녹아드러

一、벗꺼름・거치름・부룸・잔수룸・弛緩等을淸白하게一掃하며 麗艶하고彈力잇는若肌를創造합니다

二、粉化粧下로발르면 濃淡이업고오래가는아름다운化粧이됩니다

キメの細かい肌ざはり 美春

麗容は貴女の誇り

表情의아름다움을 無意味하게업시한뚜덕뚜덕칠하거나히게만하든 人形的化粧은完全히過去의꿈이되엿고 現代는레ー도白粉의생생하게 躍動하는靑春의時代입니다 레ー도구레ー무를濃淡업시발른살결에조화하시는色이 레ー도粉白粉을小量式바후로두들기면서(白粉은발끗이얼골의下部로부터上部를向하야順序잇게바르는것이잘먹고오래가는秘訣입니다) 數次엷은것을重復하야 발르면個性이躍動하고 떡아름다운化粧이누구에게나簡單히됩니다

化粧을끗내랴면 品質을吟味한優秀한레ー도연지 레ー도입술연지 레ー도 眉墨이 이以上업시잘調和합니다

レート粉白粉

레ー도

광장히 잘먹는

色・濃肌色・オークル・白色 各色二五錢・水 各色三〇錢

洛東江沿岸部落民 一千六百戶移住

水害恒久對策으로 近近實行

明春滿洲移民도計畫

【大邱】수해항구대책으로써 수해를방하는 부락에대하야 하로밧비이전을 실행하고저 경북도지방과에서는 각군에 명하야 이전부락의조사를 착수하야오든바 요즈음에 그본조사가끗나스므로 이십팔일부터 개최되는군수회의에서도 각군수들과 타합한결과 도내수해상습부락 일천륙백십팔호를 각기안전지대로속히이전하기로 결정되여 곳이전에착수하야 시월말까지는 완료할예정이라한다 총경비사만원은 의연금으로써 지출할것이라하며 매호당이전비보조는 이십오원이라하며 그외에 상습지대의 수재민열천호는 명춘에 만주로이주시키기로 결정되엿다한다

水災民을爲하야 救濟빵을行賣 利金모아寄託

【鎭興】인간이 살아가는도정에 한때의 재변이란 이루측정할수업는일이다 보라! 이번에남선수해를!! 그가엇지 먹을것 입을것 살림사리집 극도로는 생령까지 빼앗긴것을 재해를당한 그들로하야금 생각하얏슬것이냐?! 이에 생을애끼고 살기를도모하는사람이라면 그들 생령에나 혼령(魂靈)에 대하야 동포되우리들로 한숨기의 동정의 눈물을 자아내지아니할수업섯다 그럼으로 지난이십오일 하로동안본보진흥지국후원과 진흥면려청년회(鎭興勉勵靑年會)주최로 삼남수해구제빵을 팔아일금이십팔원야를 본사진흥지국에 고탁하얏고 그중일원십오전야는 룡흥강 하수공사(龍興江下水工事)에서 하로삼사십전에 불과하는로임중에서 감해내여 삼남이재동포에게 눈물겨운 동정의표시를 하엿다고한다

現金四百二十圓 衣類一千百餘點

本報淸津支局에寄託된集計 第一回로本社에發送

【淸津】본보청진지국에서남조선지방수해 리재민을 구제하기위하야의연금품 모집에 착한이래 각종의미담(美談)과 리재동포를 구제하자는 열성은 학교와직장과교회와 사찰(寺刹)등 각종단체와 개인으로 끈힘업시 동족에에 넘치는 구제금품이 본보청진지국에 싸이고 싸이어 이십오일현재로 현금루게 사백이십륙원륙십륙전 물품루게일천백오점에 달하엿슴으로 현금은전부본사로 보냇스며 의류등물품은제일차로 구백륙십삼점을 본사로 발송하엿고 남어지물품백사십이점은 재지 강원도고성으로직접 발송하엿다

前津港漁民狼狽

發動機船使用制限 郡、道當局에陳情

【洪原】함남홍원 전진항(前津港)은 명태산지로 저명한 지대인데 근년에는 발동기선을사용하여 명태어를 잡게하여그성적이 양호함으로 금년에는 포어기가 임박하기에 준비공작을 완료하엿는데(매척에자금 삼천원가량) 돌연히 도수산과에서 함남도일대에 어십오천만으로 제한한다하여 전진항에서만 준비한발동기선이 륙십여척인데 각어항에 안분하면 전진항에는불과십오척 가량이나 배정될것으로 그외사십여척은 만반준비를 다하고 잇는이때 이와가튼 뜻밧게 제한을당함으로 어민의생활문제에도 큰영향이 밋치여죽시군당국에 진정하고 도수산과에 진정중인데 사건의 진전을 일반은 크게주목하고 잇다한다

同情淚에어린 無名氏十圓金

【安州】삼남지방의 리재동포를 동정하는 적성으로 일금십원을 우편으로 긔탁한 무명씨독지가 잇다 지난이십륙일에 시내일독자상(市內一讀者上)이라쓰고 읍내조선일보안주지국어중(邑內朝鮮日報安州支局御中)이라한 우편물한장이왓기로 이를 개봉한즉 그속에는 십원짜리 지폐한장과 다음과가튼 눈물어린운 글이씨워잇엇다

今夏 三南地方의風水災의慘狀이야말로 目不忍見일것이요血淚가잇는 同胞로서(中略)飢寒에 울고잇는災害同胞를爲하야 微誠이나마다하오니 約少하나마 이를災地로 보내주십시요

一、金十圓 一讀者上

泰川陽和寺에서 金十圓을寄託

【泰川】평북태천에잇는 양화사(陽和寺)에서는 남조선수재동포의 참혹한 정경을 생각하야 적으나마 재민에게 보내달라고 지난이십칠일 본보태천지국에 일금십원을 긔탁하야 왓다는데 동양화사에서는 항상 빈민을 위하야서도 구제의손을 뻐칠뿐아니라 일반사회사업에도 공적이 만흐므로 일반의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水害救濟畵報

(上) 本社鎭興支局과 鎭興勉勵靑年會主催로 災民救濟行商光景 (中) 本社經由救濟品을 各災地에發送하는光景(榮州) (下) 本社經由救濟品配給光景(星州)

萬城分局後援의 西朝鮮蹴球大會

【萬城】평남만성에잇는 만성체육회 축구부에서는 본사만성분국후원으로 서선축구대회(西朝鮮蹴球大會)를오는 시월오일만성공설운동장(萬城公設運動場)에서 개최한다는바 서조선각지선수의다수참가를 바란다고하며 규정은 다음과가타

▲參加金 二圓也
▲申請場所 萬城體育會內
▲申請期日 十月五日午前八時까지
▲抽籤 十月五日午前九時
▲規則 現行아一式
▲賞品 優勝旗優勝盃副賞十圓也

衣類三百餘點을 第二回로發送 鐵原支局經由

【鐵原】본보철원지국에서는 이십팔일 동포애의열노 모여든 수해구제의류삼백십륙점을 동해선 이차교통두절로인하야 원산지국을 경유시키어 강원도내면면수혜지로 일시라도 밧비추위에떠는이재동포들에게 입혀주기위하야 제이회로 발송하고 이어제삼회송품을 모집중이라고한다

郡廳舍落成式廢止 災民救濟에一致

千圓을救濟費로支出

【求禮】다년현안이든 구례군청사는 동경찰서의 청사는 삼만오천여원의 거대한공사비로 거의 일년이란 시간과공비를 들여 각각이 준공하야 특별히 중추원참의를 초빙하야 대규모의 신축락성식을거행하려고 계획하엿든바 미증유의 폭풍우로 인하야 전조선적으로 막대한손해를 밧고 잇는이지음 지난십오일 구례군청에서 당국자와 동신축과 성의원들이모여 이에대한 타합회가 잇섯는데 방금재민이 도탄에빠저 긔한의 위협을밧게되는 이때에 수천원의 경비를 계상하야 부질업는소비를 하는것은 불가하니 차라리 이경비로써 사선에헤매는 지방리재민을 구제하자는긔 장 김태균(金泰均)씨의열렬한주장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여 위선그경비중 천원만은 죽시구례지방 이재민구제비에 충당케되엿는데 이재민들의 기쁨은 이루형언할수업고 일반의중송이 자자하다고한다

男便의疑心밧고 죽엄으로써雪辱

子息男妹를絞殺、自身은未遂 東萊溫泉場의慘劇

【釜山】남편에게 의심을 밧고 죽엄으로써 결백을 증명하겟다고 비장한각오로 사랑하든 아들딸등 삼남매를 교살한후 자긔도 자살할려다가 발견되여 미수에 도라갓다는 참사가 유명한 동래온천장에서 발생하얏다 부산정미시장(釜山正米市場)주임 대부가길(大部嘉吉)의처 대부무자(大部茂子)(二七)가 지난 이십칠일 오후두시경 장녀 도자(道子)(九) 이녀 춘자(春子)(七) 이남 청(淸)(四)등 삼남매를 다리고 동래온천장(東萊溫泉場)약송려관(若松旅館)에와서 놀고잇섯는데 동녀는 세남매에게 칼모진(催眠藥)을 먹이고 노끈으로 이녀와 이남을 교살하고 장녀마저 교살하려다가 저항으로 말미아마 목적을 달하지못하고 자긔도 죽고자 칼모진을 먹고 고민한든것을 장녀의 급보로 려관주인이 달려와서 의사를 청하야 응급치료를한결과 생명에는 별관계가업게되어 결국 이녀와 이남만죽고 자긔와 장녀는 불행중 다행으로 소생하얏다한다 이비극의 원인은 지금으로부터 약십년전에 전긔 대부가길이가 봉천서 결혼하얏스나 남편이 항상처녀시대에 부산부 서정(西町)모(某)와추한관계가잇섯다는 의심으로 결혼후도여시 남편의 눈총이며 모와추한관계를 계속하고잇다고 늘의심함으로 부부간에 불화가 계속되여오든바 비극이 이러난전날인 이십륙일도 역시그문제로 말다툼을 하얏든데 남편의구박에 약한 녀자의 몸으로서 이우에 더 견듸수업서서 죽음으로써자긔의 청백을 증명하겟다는 비장한결심을하는동시에 자긔가죽은후에 사랑하는 삼남매가 어미업는자식으로서 가진고생을할것을예상하고 차라리 가티죽는것이 조켓다는 생각으로남편이일보러 나간후에 온천장을 죽엄의 장소로정하고 그와가티 비극을연출한것이라한다

寧邊狼林山一帶 積雪二寸의奇景

農作物에는大打擊

【平壤】대륙의 가을은 발거름이 빠르다 녕변지방(寧邊地方)일대에는이십오일 우박이 석긴 가을비가 나리어 천자만홍의 랑림산(狼林山)과 동소백산맥(東小白脈)일대를 휘장하더니 다시 불순한 백설로 변하며 일대는 삼시간에 별유천지인은세계를 일우워 적설이촌의 긔관을 보혓다 추수하는 가을철 때아닌 대설은 농작물을 여지업시 망치고 마러 농민은 무심한 창천을 처다보고 한숨지을뿐이라한다

西朝鮮庭球戰

【舍人】평남사인장 철도구락부주최와 본사사인지국후원의 서조선제일회 정구대회는 지난이십칠일 오전십시반부터 역전공코트에서 열니엿는바 일기가 불순한탓이엿든지 미리신청햇든 이십여팀선수중에서 당일참가는 겨우 여덟팀에 불과하여서 다소유감이 업지안핫다 그러나 첫출대전인 황김조(黃金組)의 묘기를비롯하야 결승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백열전이 전개되엿섯는데 영예의 우승기는평철군 리(李) 왕(王)조가 차지햇슴 당일의전적은 다음과갓다

◇準決勝戰
金益謙 朴範達 ○四……一× 丁尙化 康用龍
×黃錦盛 金雅謙 ○……四○ 王聖學 李昌周
◇決勝戰
李昌周 王聖學 ○四……一× 金益謙 朴範達

本報經由救濟品 衣類千三百餘點

星州罹災民에配給

【星州】본보성주지국에서는 금번본사에서 분포된 수해구제품의류 일천삼백여점을 지난 십구일부터 일주일동안에 공하야 지국원총동원으로 군내에서도수해가 제일혹심한 금수면영천무학 봉두동(金水面希川舞鶴鳳頭)과 가천면금봉동 화죽동 계 룡사동(伽泉面金鳳洞 花竹洞 新界 龍砂洞)과 수륜면 수륜동 수성동(修倫面修倫洞 水成洞)어상삼면 구개동에잇는 리재민 삼백십륙호 일천오백여식구인에게 배급하엿다

仲秋節인이때 怪!梨花滿發

【金泉】개령군개령면(大?面)에는 각종의 과실이 만히 산출되는동 배(梨)는 동양서도 굴지하는곳인바 금번에드려서는 저번태풍에 변산액십이만원의 가액을내는 배가 전멸되엿다는것은 긔보한바어니와 바람에 입과 과실이 전부떠러진나무에 근일에 드러서는 때아닌배꼿치 만발되엿슴으로 일반은이에대하야 큰이야기거리가되엇다

全朝鮮天安郡各邑面對抗 脚戱大會

▲時日 十月一、二兩日間
▲場所 天安驛前川邊
◇主催 天安脚戱同好會
◇後援 朝鮮日報天安支局

大同 靑少年蹴球大會

▲時日 九月卅日午前九時
▲場所 大同郡林原面運動場
◇主催 信友靑年會
◇後援 朝鮮日報大同支局

地方學校運動會

▲原州公普校 十月一日 ▲月山普校 同上 ▲金城普校 同上 ▲南面普校 同上 ▲永北普校 同上 ▲豊基普校 同上 ▲寧安普校 同十日 ▲大峙普校 同上 ▲古西普校 同十七日 ▲鳳山普校 同上 ▲長城普校 九月三十日 ▲洪城公普校 同十一日 ▲求禮公普校 十月四日 ▲……普校 十月一日

愛慾의彼岸 【114】

李光洙 作 金康穆 畫

혜련은 강에게서 한걸음 물러나서 고개를 숙이고 듯는다。

『혜련은 내가 일생에 본 여성중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성이야。내가 상상할수잇는 여성중에 가장 아름다운 맘을 가진 여성이야。그 동안 몃해보지가 수변 되어지마는 본질이야 변하는법이 잇나。일전 원산에서 잠깐 볼때에 혜련은 내가 생각하고잇던 혜련이상이엇서 어디를 가서 아모리 골라 보아도 다시 만날수업는 아름다운마음을 가진 여자가 어찌하다가 금이나 옥덩이에 생기는 모양으로 어쩌에!그중에도 복얼는 조선에 어쩌다가 혜련가튼 아름다운 마음이 태여낫나、하면 나는 몸이 소름이 끼치도록무서워서。더구나 이러한 아름다운 혜련이가 잘못 되고보면 긔쁜소에 못치지나 안나、하면마음이 조리고 그러키로—아니 그러키때문에 내가 혜련을 어떠케—사랑할수가 잇나?내 혜련을 만들겟다고 어떠케생녀이나 할수가 잇나。금방 나려와 차인 눈과 때무든 옷。혜련을 생각할 때에 내 몸과 마음이 부정한것을 더욱더욱、그려 넘어나 분명히 본단말야。그러치마는 이저지지안는 그 마음 그것은 이 땅우에 서서 하늘에 뜬 별을 사모하는것이나 마찬가지지。그런데 오늘 혜련이가 그 머리를 내 가슴에 던젓서。그러나 그것은 옛날 글가르치던 선생에게 대한 제자의 정이지。그런줄 알어、또 그래야 하고。혜련이 치운가。몸이 떨리니。참 칩기도 하겟군 자이것을 좀 걸치。선생의 옷을 좀 걸치기로 어떤가、자』

강은 제가 입엇던 털로 짠 자켓을 벗어서 혜련의 스프링코트 우에 둘러준다。혜련은실타고도 고맙다고도 아니하고 가만히 서 잇다。

안개가 차차 희박해저서 구룡연 골자구에 잇는 봉오리들이 잇다금 번뜻번뜻 보이기를 시작한다。

혜련은 떨리는 몸을 떨린다는 것보다는 경련하는 몸을 진정하라고 애를 쓰다가 아득해지는모양으로 아마 노비혈증이르킨양하야 비틀비틀 쓰러지려한다。

『혜련이。웬일야?』

강은 쓰러지랴는 혜련을 붓들어서 자긔가 바위에 걸터안고 자긔 무릅우에 가로 안는다。그리고는 어른이 어린애기 대한 모양으로 강은 혜련의 머리를 쓸고 어깨를 또닥또닥하며 정신차리라고 소리를 친다 그러나 그 소리는 겻헤사람에게도 안 들릴만하엿다。

혜련의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잇섯다。그 손끗은 어름 가티 엿엇다。

『이를 어쩌나? 좀 더운데누어야할텐데。웬 일야。웨 이러케 몸에 저항력이업슬까。이러케 몸이 약해서 어떠케해?혜련이、혜련이。정신 차려。야、이거큰일낫군。혜련이、혜련이!』

강은 자는 애를 깨우는 모양으로 혜련을 안아흔들엇다。그리고 저도 눈물을 흘렷다。혜련의 눈에서는 자꾸만 눈물이 흘러나리고 그 입김은 불가티 뜨거웟다。

『혜련이! 어찌하면 조아? 무슨 소원이나 다 말해! 내가 할수잇는것은 다할테니。혜련이。혜련은 내게는 생명보다도 천지보다도 더 귀한 존재야。이바。이바。정신 차려! 내 목숨을 내 노아라 하면 금시에 내어노흘께。혜련이。내 혜련이!』

강의 가슴은 갈피를 잡을수업시 혼란하엿다。

『선생님』

하고 혜련이가 또 한 마디를 부를 때에 강은 혜련의 손을 끈허지라 꼭 쥐엇다。

『여기가 어듸야요?』

하고 혜련은 잠이 깨는드시、고개를 들엇다。

『비로봉。비로봉이야。금강산에 제일놉흔 봉。』

혜련은 다시 눈을 감앗다。구름이 갈라지며 해가 보엿다。동해의 물ㅅ결이 번쩍번쩍하엿다。

先着 一萬人限하야

百補丸壹箱式無料進呈

初秋、天高馬肥之節이라 健康回復의 最好期는 왓다

萬金不換의 此事實!

●朝鮮의 貴族 兩班 大臣 各界朝野名士諸氏의最大賞贊 愛用을 밧는 補藥은 事實 事實 百補丸뿐임니다

●今回 獨逸伯林서열닌 萬國大運動會選手에게까지 愛用된補藥은 事實 百補丸뿐이며百補丸은 補血、强壯劑로果然世界第一임니다

●世上에는 別別虛無誇大한 廣告도만흐나事實 百補丸과갓치效力조흔藥은다시업슴니다

●百補丸의 偉大한效力은 只今 區區한 說明을할必要가 업사오니 廣告보다 事實을밋고쓰시요

◉青春을 延長하고저하는 사람
◉不老長壽를 希望하는 사람은 쓰시요
◉過飮過色人께 特速効합니다
◉男老少를 勿論하고 虛弱한 사람은다쓰시요

●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性慾이減退되고 手足과下焦가恒常濕冷한분
●消化不良 체증 속병으로 고생하는분
●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묵업고 四肢가 勞困하고 貧血이甚한분
●肺가不足하야 活氣가업고
●形容이蒼白하고 全身의 元氣가 不足한분은早老할 症狀이요 長壽못할 症狀이오니一日速히 世界的補血强壯劑 百補丸을服用하여 完全하고 씩씩한 靑春의 所有者가되시요

◎나무가마르려고할때에 肥料와 물을주지아니하면 그나무가엇더케되겟니가
◎사람이性慾이줄고 氣力이업고 勇氣가나지아니하는때에조흔 補藥을아니쓰면 마르려는 나무에 물아니준것갓치 悲慘하게됨니다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長少年仙藥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根本的回春壯陽強精強筋強骨借力 平生無病健康長壽劑

孫基禎은 世界第一!

몸만튼튼하면 무엇이나못할것이업다 弱한사람은爲先 世界的强壯劑百補丸을쓰시요

世界第一紀念

●獨逸서開催된萬國聯合大運動會에서孫基禎이一等! 이榮光、이名譽를紀念하고 祝賀하기爲하야 獨逸에는 孫君의銅像이서고 朝鮮에는 紀念體育館이發起되고

●日本政府는 一千萬圓의 保健費를豫算하는等 健康問題로 天地가振動하는 이때에

●最高의健康劑 百補丸本舖 平和堂株式會社로서는 同胞의 健康을爲하며 또

●이世界的名譽을 慶祝하기爲하야 百補丸十圓分 一劑사시는분께 (拾圓包半劑入) 一箱式을 無料添呈하기로하얏사오니 남보다 먼저 速히 注文하시요 一萬人이차면 無料進呈은 中止하게됨니다

●注文書에는必히 祝賀特賣注文書 라고明記하시요

百補丸을쓰면 무엇이나 所願成就

藥價 一劑特價十圓 普通用二十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하시는이에게 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京城府堅志町(五ノ一) 振替五番 電光六三二番

●百補丸은 昔日에난 特別한 貴族兩班 만히쓰던 秘方補藥인데
●現代에난 누구던지 自由로 쓸수잇게 되엿다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經濟解說

金本位總崩壞

法貨平價切下原因 ②

李健赫

惡性惡化에서 急落으로 轉化하야 平價切下, 金輸出禁止斷行으로 畢竟은 오래동안 버티어오던 金本位制를 離脫케된 佛蘭西經濟의 內容은 어떠하얏는가? 法貨가 이러한 運命을 보게된것은 歐洲政局緊迫에 依한 軍備擴充의 國際的原因外에 國內的으로 三大原因이 잇스니 即政治的, 財政的, 經濟的으로 난홀수잇다。

첫재 政治的原因으로 말하면 불룸內閣의 基礎인 人民戰線의 內訌이 西班牙內亂으로 同國의 現人民戰線內閣에 對한 叛亂으로서 佛政府는 不干涉이엇스나 主로 左翼共産黨側에서 이것을 援助하자는 運動이 이러나고 西班牙向 武器輸出 卽時解禁을 要求하고 示威的騷擾를 開始하얏섯는데 其後 解決되엇지만 賃金引上要求運動이 起하는等으로 불룸內閣은 危機가 傳하얏는바 法貨暴落의 直接原因이 全部 今次 佛國內外政局變化에 잇는것은 勿論 아니지만 現內閣의 金融政策이 破綻을 暴露한데잇는것으로 第一은 法의 割高가 現實로 原因을 招致한것 第二는 退藏資金及海外逃避金의 還流에 依하야 危機를 打開코저하든것이 事實上 失敗에 歸하야 去六月 불룸內閣成立後의 法貨流出이 三十億 年初以來流出은 百億에 達한狀態이엇다。

둘재로 財政的原因은 불룸內閣의 經濟政策이 結果에잇서서 財政을 窮迫케하야 物價及生計費의 昂騰을 招致하얏스니 財政支出이 增大하는 一方으로 一一七月稅收入은 百十七億千七百萬法으로 比前年同期一億九千萬法減收이며 直接稅와 如한은 三億二千九百萬法의 減收이엇다。이財政危機는 一九三六年度 普通豫算을 百十億法의 赤字를 計算할것이나 六十億法의 特別豫算을 合하면 百七十億法의 赤字가될것이며 三十億法의 對英借款도 十一月二十日의 最後期限이 닥처오고잇서 合計二百億法의 資金을 求하는 方法으로는 지급調達하여야할 處地에 잇게되엇다。

그러데 公債는 大衆이 應치안어 財源捻出에는 不足金을 佛蘭西銀行으로부터 借入할수밧게업고 通貨인푸레를 導할情勢이엇다。

셋재로 經濟的理由는 米大統領의 例에倣하야 高物價政策, 勞賃增加와 購買力依復에 依하야 事業界의利潤을 回復하자는것이엇스나 米國은 弗切下가 先行이고 그것에 依하야 生産고스트의 物價昂騰에 比하야 利潤增大를 圖하얏슴에 比하야 先後가 밧구인것이라하야 財界方面에서는 切下를 歡迎하얏섯다。即 金本位下에서의 佛蘭西經濟狀態는

가、一九二九年을 基準으로한 今年上半期工業生産指數가 七一·六으로 前年同期의 六六·一보다 回復되엇스나 就業狀態는 改善되지안어 六月末現在失業者數는 四十五萬九千人으로 比前年同期二萬六千人增加이다。

나、一九一四年基準의 物價指數는 八月에 八〇으로 比一年前 一割四分의 昂騰으로서 世界物價水準보다 四割乃至六割高이다。

다、生活費指數는 九六으로 比 一年前 一割六分高이오 佛國民一[illegible]

貿易이 增大되엇다。 輸入은 前年 一一七月計로 十二%增이나 輸出은 五十五%減으로 入超額計가 [illegible] 前年同期보다 增大로서 [illegible] 十二億法의 增大로서 [illegible] 이가리하야 切迫한 [illegible] 危機를 [illegible] 實上 [illegible] 는 안으로 人民戰線을 [illegible] 止를 斷行하게되엇다 이에잇서 先決條件이 [illegible] 切下後 [illegible] 米佛의 支持 即「法貨平價切下」[illegible] 國通貨協定이다。

今後問題는 英、米、佛三國의 通貨協定이 어느程度로 잘되어 가는가에잇는것으로 英國이 世界經濟會議에서 이미 [illegible] 協定에 [illegible] 언제 [illegible] 世界經濟會議와가 [illegible] 一九三三年의 世界經濟會議와 가티 또失敗케될것이아닌가?

(終)

朝鮮의工場數

五千六百卅五工場

前年比五百工場增

【殖産局調査】=昭和十年末現在의朝鮮工場數(職工五人以上官營은除함)를 調査하면 總數五千六百三十五工場으로 前年에比較하야 五百九工場의 增加로 勿論過去에 類例가업는工場數의 激增을 示하고잇다 累年의工場數를 比較하면

	工場數	前年比增加數
昭和六	四、六一三	五二
同 七	四、六四三	三〇
同 八	四、八三八	一九五
同 九	五、一二六	二八八
同 十	五、六三五	五〇九

前年에 比較하야 業種別로 工場이 가장 增加한것은 化學工業으로 二百五十九工場이 增加하고 食料品工業의 五十八增、木製品의 三十四、紡織의四十一이 눈에 띄인다 業種別前年工場數對照는 다음과갓다

	十年末	九年末
紡織	三七七	三三六
金屬	二三九	二三二
機械器具	三三四	二九二
印刷製本	二八五	二五八
食料品	二、三二六	二、二六八
電氣瓦斯	五一	五二
窯業	三三六	三一二
化學工業	一、一六一	九〇二
木製品	二四〇	二〇六
其他	二九六	二六五
合計	五、六三五	五、一二六

滿洲國產業五個年計畫

資金은內外債發行

【新京廿九日發同盟】滿洲國政府는 產業五個年計畫實現을 爲하야 明年度豫算에 斷然 財政上積極的方針을 세우기로 決定하고 右積極的方針에 依하야 滿洲國의 產業開發을 完成식히게되엇다 그런데 그資金은 公債政策에 基하야 內外債의 發行으로 建設資金을 獲得할터로 右公債는 歲入의 不足을 補塡하는 赤字公債와 如한性質의것이 아니고 積極的建設公債라 稱할것으로 公債發行額은 外國債(日本債)一億五千萬圓、國內債一億五千萬圓合計三億圓程度로 보인다 그리고 滿洲國의產業五個年計畫은 十五、六億의 資金을 必要로하는데 滿洲國政府는 發行公債以外의 必要資金은 日本財界及滿洲國內에서 調達할 方針이라고보인다 또 滿洲國政府는 公債發行의 確然한 償債計畫上 官業收入의 增加를 圖하고 또增稅는 行치안코 租稅의 整理及新稅를 設定할 意向이라한다

咸興燒酎共販解消

咸興에서 芳賀前咸興稅務監督局長斡旋下에 創立計畫中의 咸興燒酎業者로서 組織하려한 咸興燒酎販賣會社는 局長의 平壤轉出과 手數料問題等으로 意見이 不一致하야 解消하게되엇다

更生水組

罹災對策

總督府方針決定

過般의 南朝鮮風水害와 今年의 記錄的凶作으로 昨年의 米價高에依하야 着着 更生의 實을 擧하고잇든 更生水組聯合會의 業績에 深刻한 危惧를 갓고잇는바 總督府에서는 이에對하야 다음의 方針을取하기로되엇다

一、이번의 風水害로 大被害를 受한 慶南水組의 歲入缺陷은 歲入缺陷、補塡金으로써 充當함

一、各水組의 減水에依한 打擊도 이範圍 及 積立金으로써 充當함

一、工作物被害는 이와 別個로 하야 考慮함

一、따라서 積立金으로써 工作物被害補塡에 充當하는일이업서 四、五의 水組打擊을 聯合會全般에는 及치안케됨

白耳義政府

市場開市決定

【브랏셀廿八日發同盟】白耳義政府는 佛國의 平價切下의 結果 休場中이던 全國各取引所를 二十八日부터 一齊히 開市하기로 決定하얏다

『라트비아』도 金本位停止

【倫敦二十八日發同盟】엑스체인지通信社리가特電에依하면 라트비아政府도 金本位停止를 決意하고 二十九日부터 實施하기로 되엇다 比率은 大體一九三二年의 一磅二五랏트二二로 定하리라고보인다

蘇聯政府도 留切下斷行?

【巴里二十八日發同盟】마린紙의 報道에依하면 蘇聯政府도 法貨의 平價切下에 倣하야 留의 實際價值를 相當히 切下할 方針이라고한다

리라貨結局切下?

【羅馬二十八日發同盟】法貨의切下에基한 國際經濟上의 新情勢에 對應하기爲하야 伊太利政府는 三日間 株式市場의 休止를 命하얏는데 法貨切下法案이 佛國議會를 通過함을 기다려어떠한 對策을 講究할 方針이라한다 果然 首相은 二十八日午後 商相데레발氏를 베네치아宮에 招致하야 長時間에及하얏는데 結局 國內的으로는 리라貨를 切下치안코 對外的으로는 一弗二〇리라가량切下하리라고 보힌다 但 財界側에서는 瑞西法의切下 길다ー貨의 輸出禁止에 鑑하야 伊太利政府의 리라貨切下를 要求하고잇다

和蘭諸取引所

二十九日再開

【암스테르담廿八日發同盟】經濟界의 動搖는 코라인首相의 放送演說에依하야 政府의 意圖가 判明되엇슴으로 廿六日以來 休業하고잇던 國內諸取引所는 廿九日부터 一齊히 再開하기로되엇다

佛金輸出禁止令

廿九日官報로公布

【巴里二十九日發同盟】佛國政府는 法貨의 平價切下案이 上下兩院을 通過되야 實效를 生하게된데 압서서 金의 海外逃避를 防止하기爲하야 金輸出禁止를 斷行하기로 決定하고 二十九日 官報로써 禁止令을 公布하얏다 右禁止令의 內容은 左와如하다

一、金塊 又는 金貨의 輸出再輸出乃至移出은 佛蘭西銀行의 勸告에 依하는 境遇外에는 當分間 一切을 禁止함

一、本令은 即時이를實施한다

時局關係反映

上海航路活況

中國에잇서서 日中間形勢惡化를따라 中國產物의 對日本輸出은 投機的으로 急激히 增加하고잇는데 朝鮮郵船上海航路도이로 平安丸은 每復航滿船狀態로 上海로부터는 粗布、小麥의 積荷가 激增하고잇다 그리고 靑島로부터의 積出도 旺盛하야 平安丸會寧丸의 二船은 모다 中國特產을 滿載하고 歸港하얏다

金價暴騰!

倫敦金塊暴騰

=七磅台로=

佛의法貨平價切下로倫敦金塊市勢는 入電이업더니 二十九日入電倫敦金塊는 一온스七磅〇志九片으로 오래간만의 七磅台로暴騰되어 二十六日入電市勢七磅十七志九片半에 比하야 約三志高로 日貨一匁換算으로는 三十錢의 一擧暴騰이엇다

大阪

【大阪發電話商通】오래동안 保合이든金市勢는 二十九日一匁買價二十十三圓六十錢을示하야 十三圓으로十錢昂騰하얏다 右는 佛政府의 平價切下에 依한 歐洲金블럭崩壞를反映하야 英米의 크로스레ー트의 下에伴한 圓爲替의 暴落과 倫敦市勢暴騰을 報한때문이다

京城

京城市中地金市勢는 法의 平價切下問題其他로 金價値의 騰貴等으로 海外高를 移하야 日本內地市勢를反映하야 朝來無取引이나마 氣配만 强合하고 建價는 一匁賣十三圓十五錢 買十三圓五錢 唱하얏다

東銀興南支店

十月一日부터昇格

東一銀行興南出張所는 十月一日부터 支店昇格과共히責任者를 如左히任命하얏다

▲咸興支店支配人代理 韓在謙 ▲興南支店支配人 ▲咸興支店支配人代理 李貞常 ▲興南支店支配人代理

取引停止

(九月二十五日)▲食料品商 京城府慶雲町四三番地 三陵商會沈載元▲京城府鍾路一丁目四四番地李殷萬▲書店京城府蓬萊町一丁目七五番地盧益煥▲食料品業京城府武橋町三五番地南一商會白錫基

經濟界消息

○朝運安東出張所=朝鮮運送에서는 中央線의 着工準備進捗에따라 그工事材料運搬과 開通後의 小運送에 備하기爲하야 慶北安東에 出張所를 十月十五日부터 開設하기로 決定하얏다고

▲米日爲替

【經商二十八日發同盟】今日의米日爲替는如左하다

賣二十八弗九十仙이고 買二十八弗八十八仙이다

東京爲替(二十九日)

對米	賣	二十八弗四十三分
	買	二十八弗八十七分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大阪爲替(二十九日)

對米	賣	二十八弗四十三分
	買	二十八弗八十七分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商況 〔廿九日〕

洗鍊된市勢

月末月初高期待

增稅案發表 中國問題險惡 佛의金輸出禁止法貨平價切下等內外巨額的惡材料가 續出하얏스나 이미八個月間에 遞하야모든洗鍊을치르고난 市勢는 意外에强味가잇서 惡材料無感應의 場面이고서 昨日大阪長期當限平穩納會好感과 相俟하야 最後의 玉整理까지 끗는것으로보든 月末月初高期待의買物이 나와서 東新百三十八圓臺 日產八十一圓臺로 好勢이고目前高豫想이엇다

强氣의大勢觀

增稅問題는 議會에서 다시論議할것이오 日中問題는 지금 [illegible] 解斷할수업스며 行政機構改革問題로 政局에重大波紋이잇고 金本位의殘壘가깨어진 今後의 世界通貨問題가어떠케 歸結될것이지 關心을 가지게할이잇서비록 八個月間洗鍊된 市勢일지라도 決코 單純한 上騰을 밟기어려운點이 업지안흐나 增稅案內容의 影響은 이미 出盡된터이오 日中問題는 一時的 衝動은 잇섯으나 大局으로는 最惡의 境遇에도 [illegible] 金本位國도 一應解體된것이나 世界的軍備를 먼저 市勢에 나타내게 되리라하야 東新가를것도 天井을 지울때가지는 押目買이고 日產은 [illegible] 三十圓의 價値가잇는 라이니 [illegible] 鐘新도 增設의具體化在近과 事業擴張高實現餘地가잇다는 强氣的解釋이잇다

株式

日產高等 堅强

前場續强 昨後場强調의 前場은 續强步調를 보이어 東新은 百三十八圓五十錢 日產八十一圓五十錢 日產新八十二圓五十錢 大新七十一圓九十錢 鐘新百七十三圓五十錢 朝新五十二圓七十錢 [illegible] 各高價가잇섯다

▲東新 [illegible]

後場堅調 後場은 寄付는 東新百三十七圓二十錢 日產八十一圓三十錢 朝取八十八圓七十錢 朝新三十八圓五十錢 大新七十一圓四十錢에 堅調大引

實物前場取引

▲合同鑛業二九、三〇 ▲帝麻新二七、九〇 ▲日本曹達 [illegible] ▲朝鮮製糖 [illegible] ▲朝鮮煙草一四、三〇 ▲朝鮮鑛業一八、四〇 ▲滿洲煙草一四、三〇 ▲帝國產業四六、五〇 ▲日本소례이레스二〇、六〇 ▲鹽水港糖五三、六〇 ▲包新一六、四〇 北樺太石油五〇、五〇 ▲旭日油新一三五、〇 (取引一六〇株)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商通】課稅率의 推測難으로서 持不安이 增加하야 米貨는 再度反落步調로 六分半四圓八十錢低、五分半三圓十錢低 佛貨도四十錢低落이오 이에伴하야 內地債도 不變어며 一、二十錢下押이엇다

▲甲五分利 一〇〇、五〇 ▲一圓四分利 一〇〇、四〇 ▲金一圓四分利 一九六、四〇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〇、四五 ▲參五分利 一〇〇、八五 ▲一圓四分利 一〇一、四〇 ▲佛貨一九六、三〇 ▲米貨六分半 三九九、〇〇 ▲滿洲公債 一〇〇、三〇

米期 當限波瀾 納會

前場膠着 昨後場阪地二十九圓九十九錢止와共히 六十九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九十七錢인 二丁反落을 傳하고 十七圓六十九錢인 當限은 昨止同樣으로 場을始하엿스나 實物의 拂出과 投物과 乘及차의 賣物이 一擧에百十二丁의 二十七圓五十一錢인 先限보다十餘丁下에 暴落을示하엿다 그後 當限은 二十八圓臺로反騰하고 先限은阪地九十二錢의 小幅과 相保하야 六十一錢까지 下押하엿다가 阪地八十九錢止와共히 六十六錢에 場을止하고 當限은二十八圓九十九錢에 納會되엿다

後場少高 後場은 二十七圓六十九錢에 三丁高로 寄付後 二十七圓七十二錢에 올으고 四節부터 [illegible]

當限慘落原因

渡米의剩餘!

去七月初에 三十一圓八十九錢의 最高值를보인 當限은 先中兩限代일지라도 本月에入하면서 又落하야 再再昨日의 二十八圓十錢의 低落을示하엇다가 [illegible] 二十七圓五十一錢의 大慘落을 示하엿는데 [illegible]

當限二代記

步幅四百四十丁

今前場으로 納會된 當限은 七月十日에 三十一圓七十錢에 最高價를 [illegible] 最高價를 [illegible]

當限受渡內容

當限受渡石數 一萬一千四百石

當限受渡價格 二十八圓九十九錢

▲渡方 [illegible]

▲受方 [illegible]

各地當限受渡高

	石數	價格
大阪	四〇九〇〇	二二三三〇
東京	三九三〇〇	三二二六〇
下關	一二五〇〇	三一六〇〇
大邱	三四〇〇	三八五〇
釜山	五〇〇	一〇〇〇
群山	九〇〇	三八六六
木浦	一五〇〇	一八五
仁川	一四〇〇	一九〇〇

今日財界 (廿九日)

◆米 (單位圓) 仁川正米 先限 ... 三等米 ... 京城白米 ... ◆市中金融 ... [illegible]

◆株 (單位圓) 朝鮮 東新 日產 大阪 ... [illegible]

堂島前場堅調

【大阪電話商通】昨日 [illegible] 高價警戒人氣와 今朝는 [illegible] 小口利喰으로 [illegible] 下値는 田中貞의 [illegible] 一息商狀이엇다 [illegible] 繼込된것으로 [illegible] 今前場으로 受渡측의 [illegible]

▲賣方 東京側、海部自己 地場軟派、中京側乘換 ▲買方 田中貞、地場軟派、地場歲分

各地正米

京城下放

新米出廻로 市場訂正低이오 五十錢大下放이엇다

㊂三等 二八、三〇 四等 二八、〇〇 一等白米 二七、二〇

仁川訂正低

新米出廻高價가訂正되어 五十錢의 據下臺演하얏다

㊂三等二八、三〇 四等二八、〇〇 一等白米 二七、三〇

釜山不動

先約物이 잇스나 現物取引은 當用小口에 限하고 沈滯한 場面을 呈하얏다 一般은 來月待의 態度이다

大邱頑强

期米小强으로 繼續하야 五錢高唱이나 一般이 新米出廻待로 取引은 거의 傍觀이엇다

四三等 二九、五〇 四等 二九、二〇 一等白米 二二、一六

群山續騰

阪地當限昂騰으로 刺戟되어 氣配更히 十錢騰이오 一般이 越月待로 積極的取引은 躊躇되엇다

四三等 二九、〇〇 四等 二八、七〇 一等白米 二二、一五

木浦不變

賣物杜絶狀態로 取引이 全然업고 休商同樣의 閑散場面을 呈하얏다 新正租는 出廻가된다

㊂三等 二九、一〇 四等 二八、八〇 一等白米 二三

大阪四市場納會

大阪綿絲綿花人絹砂糖四市場은 今前場으로서 納會하고 後場은 例休이다

株式 廿九日

◆朝取短期 (前場) ◆東京短期 ◆大阪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廿九日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朝取期米 ◆大阪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木浦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 (單位錢)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龜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興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馬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品 廿九日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外國期 [illegible]

金融 廿九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勢 ◆日本銀行勢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 廿九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廿九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綿絲布價 ◆綿油沖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米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式 米 金益證券株式會社 光皿 東京屋商店

株式 米期 玉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金.銀.白金 德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234